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 영 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도 차문화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백 주 원

제주도 차문화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주 영 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백 주 원

인 준 서

백주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논문개요

제주도로 최근 이주하는 인구가 크게 급증하고 있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한류영향으로 K-POP, 드라마, 영화와 관련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화하여 중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제주도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전시·공연·상영·행사 등 제주도의 부족한 문화 환경으로 제주도민의 문화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이제는 제주도를 한번쯤은 모두 다녀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 국민들에게 살아보고 싶은 곳이 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도를 재방문하게 만들고, 제주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제주도만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및 문화 콘텐츠개발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유네스코(UNESCO)로 일찍이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곳이다. 또한 제주도는 녹차 재배의 완벽한 기후조건과 강수량, 토양과 암반수를 가지고 있어 녹차를 재배하기의 최적의 장소이다. 이와 함께 추사 김정희를 비롯한 여러 선조들이 유배를 온 곳으로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제주도만의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차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제주도의 관광 콘텐츠의 양과 질을 확장시키고 제주도 차문화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차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차문화 콘텐츠에 주목하여 차문화산업 영역을 ①

차문화와 관광산업, ②차문화와 MICE산업, ③차문화와 교육산업 세 가지로 나눠 기존자료를 고찰하고 제주도의 각 산업별 차문화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주도의 산업별 차문화는 문헌연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차문화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①차문화와 관광산업, ②차문화와 MICE산업, ③차문화와 교육산업 세 가지 산업별로 제안하였다.

첫째, 차별화된 제주도의 차문화 체험 활동으로 제주도 민속의상인 갈웃입고 다도체험과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게 야외에서의 다도체험, 제주 흙을 이용하여 다구 만들기 체험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체험 기관의 마케팅 및 홍보력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에게 정보전달이 잘 되지 않아 제주도청이 체험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여 제주도청 관광사이트에서 소개 및 예약을 해주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

둘째, 제주문화 접목한 고급화된 행사로 MICE산업의 식음료 부대시설로서 제주성(性)에 기반한 찻자리와 차 퍼포먼스 시연 그리고 다악(茶樂)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제주도의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과 창조경제 시대 진입으로 인해 평생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고 도민들의 교양함양 수준 향상과 제주도 지역의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차문화 교육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2. 연구방법	8
II. 차문화 산업의 개관	10
1. 차문화 산업의 개념	10
2. 차문화 산업의 유형	14
1) 차문화와 관광산업	14
2) 차문화와 MICE산업	25
3) 차문화와 교육산업	29
III. 제주도의 차문화 산업의 특성과 현황	33
1. 차문화산업의 배경	33
2. 관광산업으로서 차문화 체험	36
1) 오설록 티뮤지엄	36
2) 다희연	48
3) 제주다원	52
3. MICE산업과 차문화 행사	53
1) 서귀포농업기술센터	53
2) 탐라차문화원	58
4. 제주도의 차문화 교육	66

1) 추사관	66
2)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70
IV. 제주도의 차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71
1. 차별화된 제주도의 차문화 체험확대	71
2. 제주문화와 접목한 고품격 차문화 행사	73
3. 평생교육으로서의 차문화 교육	75
V. 결론	78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제주도 관광객입도현황	2
<표 2> 오설록 인터뷰 내용	39
<표 3> 티스톤 참가자 의견	44
<표 4>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인터뷰 내용	54
<표 5> 탐라차문화원 인터뷰 내용	59
<표 6> 추사관 인터뷰 내용	68

사 진 목 차

<사진 II-1> 하동녹차밭	15
<사진 II-2> 보성녹차밭	15
<사진 II-3> 다도체험 ①	18
<사진 II-4> 다도체험 ②	18
<사진 II-5> 다도체험 ③	18
<사진 II-6> 다도체험 ④	18
<사진 II-7> 다도체험 ⑤	18
<사진 II-8> 다도체험 ⑥	18
<사진 II-9> 찻잎 따기	19
<사진 II-10> 덮음 과정	19
<사진 II-11> 유념 과정 ①	20
<사진 II-12> 유념 과정 ②	20
<사진 II-13> 건조 과정	20
<사진 II-14> 품평 모습	20
<사진 II-15> 다식체험 ①	22
<사진 II-16> 다식체험 ②	22
<사진 II-17> 다식체험 ③	23
<사진 II-18> 다식체험 ④	23
<사진 II-19> 오방색 분말가루	23
<사진 II-20> 오방색 전통다식	23
<사진 II-21> 현대다식(화전 외)	23
<사진 II-22> 현대다식 ①	23

<사진 II-23> 현대다식 ②	24
<사진 II-24> 현대다식 ③	24
<사진 II-25> 대추 깨굴림	24
<사진 II-26> 양갱	24
<사진 II-27> 찻자리 ①	27
<사진 II-28> 찻자리 ②	27
<사진 II-29> 찻자리 ③	27
<사진 II-30> 찻자리 ④	27
<사진 II-31> 찻자리 ⑤	28
<사진 II-32> 찻자리 ⑥	28
<사진 II-33> 찻자리 ⑦	28
<사진 II-34> 찻자리 ⑧	28
<사진 II-35> 세계검찰총장회의 환영 만찬 ①	28
<사진 II-36> 세계검찰총장회의 환영 만찬 ②	28
<사진 II-37> 난향차 수업 사진 ①	31
<사진 II-38> 난향차 수업 사진 ②	31
<사진 II-39> 교육 사진 ①	32
<사진 II-40> 교육 사진 ②	32
<사진 II-41> 교육 사진 ③	32
<사진 II-42> 교육 사진 ④	32
<사진 II-43> 교육 사진 ⑤	32
<사진 II-44> 교육 사진 ⑥	32
<사진 III-1> 제주 오설록 차밭	37
<사진 III-2> 제주 오설록 입구	37
<사진 III-3> 전시실 ①	37

<사진 III-4> 전시실 ②	37
<사진 III-5> 전시실 ③	38
<사진 III-6> 녹차 활용방법 소개	38
<사진 III-7> 뒤음차 공간	38
<사진 III-8> 시음 공간	38
<사진 III-9> 티하우스	38
<사진 III-10> 티샵	38
<사진 III-11> 2층 전망대	39
<사진 III-12> 3층 오픈 전망대	39
<사진 III-13> 티스톤 외부 전경	45
<사진 III-14> 티스톤 체험장 모습	45
<사진 III-15> 다구 셋팅 모습	45
<사진 III-16> 제공된 찻잎	45
<사진 III-17> 티스톤 내부	45
<사진 III-18> 교육하는 티소믈리에	45
<사진 III-19> 남은 찻잎 포장	46
<사진 III-20> 발효차 저장 창고	46
<사진 III-21> 다희연 박물관 외부	49
<사진 III-22> Gift Shop	49
<사진 III-23> 다희연 녹차 판매대	49
<사진 III-24> 차문화관	49
<사진 III-25> 짚라인 ①	50
<사진 III-26> 짚라인 ②	50
<사진 III-27> 동굴카페 입구	50
<사진 III-28> 동굴카페 내부	50

<사진 III-29> 레스토랑	50
<사진 III-30> 녹차 족욕 체험장	50
<사진 III-31> 녹차 밭	51
<사진 III-32> 전기카트	51
<사진 III-33> 제주다원 차밭	52
<사진 III-34> 제주다원 티하우스	52
<사진 III-35> 이론 강의	57
<사진 III-36> 찻잎 수확	57
<사진 III-37> 델는 과정	57
<사진 III-38> 유념 과정 ①	57
<사진 III-39> 유념 과정 ②	57
<사진 III-40> 차 시음	57
<사진 III-41> 체험장 입구	58
<사진 III-42> 체험장 ①	58
<사진 III-43> 체험장 ②	59
<사진 III-44> 체험장 ③	59
<사진 III-45> 갤러리	59
<사진 III-46> 조리 준비실	59
<사진 III-47> 어린이교육	62
<사진 III-48> 외국인 다도체험	62
<사진 III-49> 티브레이크 셋팅	63
<사진 III-50> 제주 다식	63
<사진 III-51> 감귤 정과	63
<사진 III-52> 버섯 정과	63
<사진 III-53> 티브레이크 홍보부스	63

<사진 III-54> 국제포럼 브로셔	63
<사진 III-55> 티브레이크 ①	64
<사진 III-56> 티브레이크 ②	64
<사진 III-57> 추사 김정희 유배지	67
<사진 III-58> 추사관 전시관 내부	67
<사진 III-59> 이야기가 있는 다도체험	69
<사진 III-60> 다도체험 공간	69
<사진 III-61> 생생문화재 ①	70
<사진 III-62> 생생문화재 ②	70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주도는 최근 국내 타 지역에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로 이주하는 인구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 인구는 1946년 26만6천명에서 2000년에는 54만3천명, 2013년에는 60만5천명으로 1946년에 대비 2013년에는 인구가 2.3배가 증가되었다. 최근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제주도청에서 조사된 통계로는 제주도 주민등록인구가 62만1천명으로, 2013년 60만5천명보다도 1만6천명이 늘어났다.¹⁾

또한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1970년 24만5천명, 2000년 411만명 그리고 2013년은 1085만1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를 조사한 바로는 1227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되었다. 전체 관광객중 외국인 관광객은 332만8천명으로 전체 관광객중 약 27%를 차지하였다. 전년대비 외국인 관광객은 42.6%, 내국인 관광객은 5%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총 관광객은 증가하였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컸다.²⁾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중 대표적으로 중국인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4년 총 외국인 관광객 332만8천명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285만9천명으로 총 외국인 관광객 대비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57.8%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아시아를 제외한 서구 등의 국가의 관광객은 줄어들었다.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는통계 (<http://www.jeju.go.kr/>)

2)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통계조사자료 <http://www.jeju.go.kr>

도를 방문하는 중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중국인의 제주도 관광에 적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다. 특히 한류영향으로 K-POP, 드라마, 영화 속에 소개된 제주도로 많은 중국인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여 중국인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제주도로 유입시키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문화콘텐츠의 관심을 알고 성신여자대학교와 함께 중국 스좌좡 도시에 차예절교육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다.

<표 1> 제주도 관광객입도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률
내국인		851만7천명	894만5천명	5%
외국인		233만3천명	332만8천명	42%
세부 항목	아시아	중국 외	5만3천명	46만9천명
		중국	181만3천명	285만9천명
	서구 등	8만1천명	7만명	
총계		1085만1천명	1227만3천명	13.1%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정보공개: 관광객 입도현황 <http://iopen.jeju.go.kr/>

하지만 제주도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는 반가운 일이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2013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한횟수별 외국인의 한국여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2회 방문했던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4.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회 이상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람들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4.11점으로 가장 낮았다.³⁾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2014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보고

서」를 보면 제주도민 5,965명의 38.1%가 ‘제주도의 부족한 문화 환경’에 가장 많은 38.1%가 ‘전시 · 공연 · 상영 · 행사 등 양질의 콘텐츠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제주도민의 문화생활 만족도 증진과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도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도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UNESCO)로 일찍이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천혜의 자연환경 보유한 곳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이다. 그리고 느리게 걸으며 제주의 진면목을 발견 할 수 있는 제주올레길이 2007년 9월 1코스를 개장한 이래 2015년 10월 현재 총 26개 제주올레 코스가 있다. 또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 섬 위에는 크고 작은 368개 오름⁴⁾이 있는데 18년을 이어온 제주도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새별오름에서 열린다. 제주도의 문화관광콘텐츠로는 앞서 언급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연경관을 활용한 콘텐츠가 제주 브랜드 이미지를 더 잘 표현해주는 산업임에 틀림이 없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과 어우러지는 문화관광콘텐츠로 차문화를 들 수 있다. 제주도는 경상남도 하동과 전라남도 보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 재배지이다. 이 외에도 산청, 구례, 정읍, 강진 등에서도 녹차를 재배 하지만 하동과 보성 그리고 제주도에서 대부분의 녹차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녹차 재배의 완벽한 기후조건과 강수량, 토양과 암반수를 가지고 있어 녹차를 재배하기의 최적의 장소이다. 또한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초의 선사를 비롯하여 소치 허련, 이상적 등과 차를 통해 교류를 하였다⁵⁾하여 추사관도 차문화 유적지로 손꼽힌다. 그리고 녹차의 우수성을 일찍이 알고 차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문화관광화 시

3) 「2013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4.2

4) 오름 : 소규모 화산체를 뜻하는 제주어(출처: 제주도청, <http://www.jeju.go.kr/>)

5) 이기윤(2000), 한국의 차문화, 개미, pp.139-148

킨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 티뮤지엄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과 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녹차 재배의 좋은 환경과 복합체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주도의 차문화 산업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제주도만의 차의 문화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면 제주도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세계 관광선진국들도 자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와 관광을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경쟁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⁶⁾ 현 정부도 이에 발 맞춰 창조경제 시대를 화두로 한국적인 문화와 전통에 기반을 둔 융복합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만의 문화와 전통에 기반하고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차문화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 한다면 제주도 차문화 산업은 향후 제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제주도는 국제화에 발맞춰 수많은 나라의 도시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자매도시로 미국의 하와이와 인도네시아의 발리를 비롯해 5개국 5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상해, 일본의 아오모리를 포함하여 5개국 8개 도시와도 우호도시 협약을 맺어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⁷⁾ 제주도는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최근 MICE⁸⁾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인식하였다. 1997년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JEJU)의 설립과 함께 제주 지역의 MICE가 도입되었다. 제주도의 국제회의 2003년 10건, 2015년도에는 2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지역의 MICE행사는 외국인 참가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고 개최 기간이 길어 경제적 파급효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⁹⁾ 또한 제주도청 문화관광스포츠국 부

6) 김성태(2014),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191-193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자매·우호교류현황자료, <http://www.jeju.go.kr/>

8) 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관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한국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9) 허정옥 외(2015), 제주지역 MICE 산업의 발전방안, 제이씨씨주식회사, pp.52-53

서에 MICE산업팀이 조성되어 있으며 제주도 국제회의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제주도의 MICE산업의 수요와 맞춰 참가자의 요구에 따라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식음료 서비스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문화를 반영한 컨벤션 식음료 서비스 제공 수준이 낮은 반면 국외는 자국 특색을 반영한 메뉴를 구성하여 차별화된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⁰⁾. 일찍이 사단법인 탐라차문화원은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컨벤션의 식음료 서비스로 ‘커피브레이크(Coffee-break)’ 대신 ‘티브레이크(Tea-break)’라는 이름으로 MICE산업에 최초로 사용하여 제주도의 문화를 나타내는 제주녹차 및 제주 야생차를 포함한 제주다식을 이용하여 식음료를 제공하고 제주도 차문화를 앞장서서 알리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국가의 사신이 방문했을 때 임금이 직접 차를 대접하는 접빈다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커피대신 차를 제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1권(1401)」 2월 14일에는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진들과 더불어 다례(茶禮)를 행하고...”¹¹⁾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정조 2권(1776)」 10월 27일에는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칙사(勅使)를 맞이하였다. 칙서를 선포하고 조문(弔問)과 조제(弔祭)를 행한 다음 접견(接見)하고 다례(茶禮)를 베풀었다.”¹²⁾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선왕실에서 국가의 사신에게 공식적으로 접빈다례를 한 기록이 많이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덕목 중의 하나는 부지런함과 함께 손님을 얼마나 잘 접대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들을 잘 접대하기 위하여 술과 차를 상비하여야 했다.¹³⁾ 예로부터 여성의 인성교육으

10) 정유선(2008), 컨벤션 식음료 서비스 운영사례 분석 및 QFD기법을 이용한 서비스 개선 전략 수립,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8-110

11) 太宗 1卷, 1年(1401 辛巳 / 명 건문(建文) 3年) 2月 14日(癸卯), 癸卯/上如太平館, 與使臣行茶禮.

12) 正祖 2卷, 卽位年(1776 丙申 / 清 건륭(乾隆) 41年) 10月 27日(乙丑), 上詣慕華館迎勅. 行宣勅, 致弔致祭, 接見茶禮.

로 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¹⁴⁾ 그리고 현대에는 유아 및 아동·청소년 및 대학생·성인을 대상으로 한 차 교육의 효과성 연구의 동향에서와 같이 차 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논문을 많이 살펴볼 수 있다.¹⁵⁾ 차생활 예절교육이 초등학생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함께 긍정적인 자존감 형성을 가져와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과 사회 생활 유지에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¹⁶⁾ 유아다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는 식사예절 행동, 의복예절 행동, 인사예절 행동, 언어예절 행동에의 향상되었다.¹⁷⁾ 또한 다도교육이 청소년기의 여고생의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효과¹⁸⁾가 있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상으로 차(다도)를 활용한 인성 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된 논문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차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과 교육 등은 고유한 역사성을 갖고 앞으로도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영역이다.

제주도는 보성·하동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녹차 재배지이자 보성·하동과 함께 녹차 생산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녹차 생산량에 비해 제주도의 차문화 관광에 관련된 연구는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반면 박금옥(2010)¹⁹⁾, 기민정(2005)²⁰⁾, 이영관·박근수·오요(2013)²¹⁾ 가 연구한 보성과 하동에 관한 차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가 있

13) 「女四書」卷2, 「女論語」,待客章。

14) 규방다례보존회(2014), 조선시대 여성의 차문화와 규방다례, 민속원

15) 주영애·조선주(2009), 차 교육 효과성 연구의 동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제24권 1호

16) 정성자(2014), 초등학생의 차생활예절교육을 통한 차생활 인식과 정서 및 행동 변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연정(2004), 유아다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8) 조희선·이순실(2004), 다도교육이 여고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 학회지, 16(1)

19) 박금옥(2010) 박금옥, 보성 녹차의 복합산업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기민정(2005), 보성녹차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식품유통학회, Vol.22 No.3, pp.155-178

21) 이영관·박근수·오요(2010), 한국 하동과 중국 황산의 차문화관광 비교연구, 한국사상

으며 임치환·박진경(2015)은 우리나라의 녹차의 주요 산지인 하동·보성·제주도 관광객의 선택속성 및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문화적인 측면의 만족도에서는 하동과 보성이 제주도보다 높게 나왔고 제주도는 자연, 지리적 위치, 교통의 편리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숙박 및 음식에 대해서도 보성과 하동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차문화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타 관광지와 차별화된 차문화 콘텐츠 개발, 제주도 특성 상품개발, 차 전문연구기관의 역량강화, 차 전문가 인재양성, 수출 인프라 구축, 차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재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녹차관광지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²²⁾을 제시하였다.

제주도의 차문화 산업과 관련한 선행 연구 논문이 거의 없고, 차문화 콘텐츠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제주도가 차문화 관광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다 실용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산업 영역을 ① 차문화와 관광산업, ② 차문화와 MICE산업, ③ 차문화와 교육산업 세가지로 나눠 기존자료를 고찰하고 제주도의 각 산업별 차문화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제주도의 차문화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문화학회, Vol.68 pp.303–323

22) 임치환·박진경(2015), 녹차 관광지의 동기요인과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공학회, 20권 2호, p75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의 차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졌다. 1차적으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하고 세부적으로 제주도의 차문화 체험기관 현황조사, 차문화 교육 사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차문화산업의 영역을 ① 관광산업, ② MICE산업, ③ 교육 산업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제주도 차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기초조사를 위하여 차문화와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관광산업, MICE산업, 교육산업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산업에 대한 사례로 본 연구자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참여한 성신여자대학교의 차문화를 활용한 체험활동·찻자리행사·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차문화 산업도 관광산업, MICE산업, 교육산업에 따라 분류하였다. 관광산업으로서의 차문화로는 체험²³⁾활동으로 범주를 지정하고, 차문화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제주도의 기업 및 기관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각 기업 및 기관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와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제주도청에서 발행하는 자료집과 도보기사 그리고 각 기업 및 기관의 홈페이지와 간행물, 홍보책자의 일부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제주도 기업 및 기관의 심층면접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접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하였다. 면접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이루어졌다. 면접 대상자로부터 기업 및 기관의 차문화 관련 체험 프로그램 및 사업 현황과 특징, 직원의 차문화 전공자 현황과 차문화 체험 프로그램 조사 등 객관적인 정보와 제주도의 차

23) 체험(體驗): 기가 몸소 겪거나 겪음 경험으로서 개인의 주관 속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생생한 의식 과정이나 내용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문화 산업 발전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까지 골고루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주도의 MICE산업과 차문화행사와 교육산업으로서의 차문화도 기업 및 기관의 인터뷰를 참고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II. 차문화 산업의 개관

1. 차문화산업의 개념

‘차문화산업’이라는 용어는 ‘차’, ‘문화’, ‘산업’이라는 용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문화산업’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차’, ‘문화’, ‘산업’ 각각의 개별 용어 정의와 함께 ‘차문화’ 와 ‘차문화산업’ 대한 의미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차(茶)’의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면 차나무의 잎을 따서 가공하여 만든 마실거리의 재료로서 찻잎, 찻가루, 찻덩이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찻잎이나 차 가루 혹은 찻덩이를 찻감이라고도 한다. 찻감을 끓이거나 우려내거나 물에 타서 마실 거리로 만든 찻물이다. ‘차꽃’, ‘차싹’ 등의 경우에는 ‘차’는 차나무를 뜻한다²⁴⁾. 차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물질 개념으로서의 형이학적 차이고, 둘째는 정신적인 개념의 형이상적인 차이다. 물질개념으로써의 차는 일정한 제다과정을 거친 마른차가 물과 어울려서 약리적 효능을 갖춘 보건 의학적 차이다. 정신적 개념의 차는 마음을 수양하고 덕을 쌓는 수신(修身)의 도구로서 예절과 절도를 갖춘 차생활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일상적으로 식사를 한 후나 여가에 즐겨 마시는 기호음료도 ‘차’라고 하는데 이는 차나무의 어린잎을 따서 만든 마실 거리의 재료로 써의 차를 비롯하여 커피, 유자차, 모과차, 생강차, 대추차, 인삼차를 말하는 대용차 모두를 지칭한다.²⁵⁾ 하지만 차나무의 어린잎을 따서 가공하여 만든

24) 정영선(1990), 한국차문화, 너럭바위, p.5

차와 대용차는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차의 개념을 염밀한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기호음료를 통칭하여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차가 쇠퇴하기 시작한 조선 중엽 이후부터이다. 고려와 조선 초기에 둉이차를 만들 때 쌀죽이나 밀가루, 들국화, 구기, 참깨, 생강, 유자 등을 찻잎과 섞어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찻잎도 적게 들고 약의 효과와 더불어 다른 맛도 얻을 수 있었다. 점차 훗날에는 찻잎을 넣지 않고 만들어 차 대신 끓여 마시면서 생강차, 유자차와 같이 불리기 시작하였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자신의 저서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탕·환·고처럼 달여 마시는 것을 차로 잘못 아는 세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²⁶⁾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茶)자를 탕·환·고(湯·丸·膏)처럼 마시는 따위로 인식하여 무릇 약물의 단조롭고 달이는 것은 다 이를 차(茶)라고 말하여 생강차(生薑茶), 귤피차(橘皮茶), 모과차(木瓜茶), 상지차(桑枝茶), 송절차(松節茶), 오과차(五果茶)라고 하여 관습적으로 항상 쓰는 말로 삼는데 이는 잘못이다. 중국에는 이런 법이 없는 것 같다.²⁷⁾

그리고 ‘문화’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²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라틴어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 경작이나 쟁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농업(agriculture)과 원예업(horticulture)이라는 단어

25) 주영애 외 6인(2011), 세계의 차문화,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12

26) 정영선, 전계서, p.35

27) 정약용(丁若鏞),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第一集雜纂集第二十四卷－雅言覺非, 卷一
‘茶者. 冬青之木. 陸羽茶經. 一曰茶二曰檮三曰叢四曰茗五曰荈. 本是草木之名. 非飲清之號. 周禮有六飲六清. 東人認茶字如湯丸膏飲之類. 凡藥物之單煮者. 總謂之茶. 薑茶橘皮茶木瓜茶桑枝茶松節茶五果茶. 習爲恒言. 非矣. 中國似無此法.’ (한국고전번역원 종합DB참고)

28)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안에 culture가 들어 있다는 사실로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문화를 땅을 가꾸고 식물을 경작하고 동물을 키우는 행위를 말하는 물질적 영역이었는데 점차 추상적인 형태를 띤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으로 그 의미가 변화한다. 결국 문화란 인간의 정신 가운데서도 세련되고 일정한 유형을 지닌 정체된 형태의 의식 등을 지칭하게 되었다.²⁹⁾

‘산업’은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생산적인 활동³⁰⁾으로 여러 가지 물자나 용역을 만들어 내는 체계적인 행위³¹⁾를 말한다.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법률 제13030호, 2015.1.20. 제정]을 살펴보면 제1장의 제2조에 ‘차산업’과 ‘차문화’를 정의하였다.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차문화’에 대해서는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고 차문화 용어를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차문화를 차의 생산과 소비, 음다생활, 사회,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행위 등을 포괄하는 문화라고 하였다. 또한 차문화의 특성을 시대적 정신문화의 소산이며 건강지향성의 문화이고, 자연과 인간,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종합예술표현³²⁾이라고 하였다. 또한 차문화는 동양적 관념이 농축되어 물성으로서의 차보다는 정신적 가치로서 더 주목되었으며 우리의 차문화는 단순히 음용문화(飲用文化)가

29) 김영순 외(2010),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p.13

30)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3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32) 김용오(2012), 한국의문화와 차, 서울: 동일출판문화원, p.187

아니라 의식주 전반과 의식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예술과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차문화는 융화 속에서 발전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생의 가치³³⁾라고 하였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5.10.25.] [법률 제13448호, 2015.7.24., 타법개정]에서 ‘문화산업’ 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선행연구와 국가 법률의 용어 정의를 기반으로 ‘차문화산업’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33) 최진영(2013), 동다의식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60

2. 차문화 산업의 유형

1) 차문화와 관광산업

본 연구에서 관광산업으로서의 차문화는 체험의 형태로 제공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국내 차문화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체험활동으로 다원방문, 다도체험, 제다체험, 다식 만들기를 들 수 있다.

① 다원

「손연숙의 차문화기행」³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하동녹차연구소와 보성녹차관 홈페이지의 다원 사진자료를 활용하였다. 「손연숙의 차문화기행」은 저자 손연숙이 전국을 다니면서 차문화 답사를 다녀와 의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 본 연구의 전국 다원의 현황을 알아보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다.

다원은 차나무를 재배할 목적으로 조성된 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원(차 재배지, 차밭)으로 경상남도 하동과 전라남도 보성 그리고 제주도가 있다. 먼저 경상남도 하동은 많은 차밭을 가지고 있는데, 칠불사의 차밭과 도심다원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도 화개천을 중심으로 차밭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라남도 보성의 차밭은 드라마 및 광고 촬영지로 유명하다. 봇재 일대를 중심으로 관광 농원화 된 대규모 차밭들이 펼쳐져 있다. 150만평의 대한다원관광농원의 보성다원과 22만평의 징광다원, 봇재다원이 있다. 제주도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설록 직영 다원으로 서광다원, 도순다원, 한남다원이 있다.

34) 손연숙(2008), 손연숙의 차문화기행, 서울:이른아침

그 외 전라남도 구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 시배지라고 알려져 있는 장죽전이 있으며 구충암, 천불전 주변이 야생 차밭으로 분포되어 있다. 칠전선원에도 차밭이 있다. 경상남도 사천에는 2002년부터 사천시와 농민들이 힘을 합해 일군 150만 평의 서천다원이 있다. 전라남도 강진을 대표하는 차밭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의 계열사인 장원산업의 장원다원이 있다. 1980년 초에 조성된 약 10만여 평의 대규모 차밭이다. 전라남도 영암은 한국제다의 차밭인 덕진다원이 있다. 1979년 조성하였으며 약 5만 명 평으로 장원다원과 함께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전라남도 광주에는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삼애다원이 있다. 전라남도 장흥에는 불우당 백한경(1622~1679)이 터를 잡고 지은 가택의 사랑채로 오천정사가 있고 그 옆에 죽로 차밭이 있다. 또 장흥에는 관한마을 야행 녹차 생태체험장 1,000여 평에 달하는 차밭이 있다.

전국의 다원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 지역과 전라북도 일부지역, 경상남도 하동, 진주, 사천, 울산지역 등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밭도 있는 반면, 관광객들에게 생태체험장으로 제공되는 다원이 대부분이다.



<사진 II-1> 하동녹차밭³⁵⁾



<사진 II-2> 보성녹차밭³⁶⁾

35) 하동녹차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hgreent.or.kr/>

36) 보성녹차관 홈페이지 <http://www.greenbs.kr/>

② 다도체험

중국의 다서에 차의 효능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육우의 『다경』 「일지원(一之源)」에서는 “열나고 갈증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팔다리에 기운이 없거나, 관절 마디마디가 잘 펴지지 않을 때 차 네덧 번만 마시면 제호(醍醐)나 감로(甘露)의 효능과 견줄만하다.”고 했다.³⁷⁾ 또한 「칠지사(七之事)」에서는 “번민이 많고 마음이 착잡할 때는 언제나 진차(眞茶)를 마시며 그것을 풀어버리네.”라고 언급하였다.³⁸⁾ 『신농본초』에 의하면 “차의 맛은 쓰나 그것을 마시면 생각을 돋고, 잠을 적게 자며 몸이 가벼워지고 눈이 맑아진다.”고 기록하였다.

많은 다서에 차의 약용가치와 건강에 미치는 효능에 관해 기록하고 있으며 선조들도 차의 기능을 알며 신선과 같이 깊은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이유로 차를 예찬하며 즐겨마셨다 .

한재 이목의 『다부』를 통해보면 “한재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치로 차를 마셨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음차에서 벗어나 내면적인 마음의 차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³⁹⁾라고 하였다. 즉, 선조들은 차생활을 하면서 심신의 수양과 함께 올바른 생활 예절을 몸에 익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선조들이 지켜온 차문화와 다도를 현재에도 그 물질적·정신적 효능을 인식하고 차문화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다도체험을 해오고 있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외국인 대상의 한국문화체험 · 고등학생의 전공 체험 · 국제교류 · 평생 교육 목적 등의 일환으로 진행된 다도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과 사진자료는 다

「보성녹차사랑 작품사진 공모전」(2008.4.21.~5.24.) 우수상 작품

37) 陸羽, 『茶經』, 「一之原」, 若熱渴 濕悶 腦疼 目澀 四支煩 百節不舒 聊四五啜 與醍醐 甘露抗衡也.

38) 陸羽, 『茶經』, 「七之事」, 吾體中漬悶 常仰眞茶

39) 최진영(2003), 寒齋 李穆의 茶精神 研究 : 「茶賦」를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2

음과 같다.

다도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다도체험은 대체로 ‘한국 전통문화 알리기’를 목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다식 만들기와 한복 입기 체험을 기본으로 한국의 예절·배려문화를 연계하여 몸소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체험시간은 최소 30분에서부터 2시간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도체험에 앞서 먼저 체험자가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의 각 명칭을 알고 입는 순서에 맞춰 한복을 입는다. 시간이나 체험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한복을 입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한복을 입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입은 옷은 잘 정돈해서 개인에게 주어진 바구니에 넣어 병풍 뒤에 가져다 놓고, 머리도 체험할 때 내려오지 않게 단정하게 따거나 묶은 후에 다도체험이 진행된다. 찻상 1개에 2명 혹은 3명이 방석을 공손히 가지고와서 바닥에 눌 후 발로 밟지 않고 사뿐히 깔고 앉는다. 찻상에 함께 앉은 사람들에게 팽주(차를 우리를 사람, 주인) 1명과 손님 1명 또는 2명을 지정한다. 그 후, 차도구인 다구의 종류와 쓰임새를 설명하고 차를 맛있게 우리기 위한 적당한 찻잎의 중량, 물의 온도 등을 알려준다. 이에 맞춰 차를 우리는 방법에 따라 함께 차를 우린다. 그러나 차를 우리는 순서를 익혀 차를 내는 과정보다도 차의 본질에 집중하여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데 집중 한다. 손님은 주인에게 차를 마시게 내어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표현을 전달하고 다식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 후 찻잎이 든 다관과 찻잔을 깨끗이 정돈해서 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손님과 주인은 서로의 역할을 바꿔 진행한다.

다도체험을 통해 차를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닌, 함께 마심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찻잎을 우린 찻 물의 약리적 효능을 느끼고 찻물의 따르는 소리에 집중하며 사람과 자연을 교감하게 하며 차 우리기에 집중하여 정신을 맑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따뜻한 차로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게 한다.



<사진 II-3> 다도체험 ①



<사진 II-4> 다도체험 ②



<사진 II-5> 다도체험 ③



<사진 II-6> 다도체험 ④



<사진 II-7> 다도체험 ⑤



<사진 II-8> 다도체험 ⑥

③ 제다체험

현대의 녹차 제다법은 대부분 사찰에서 이어져 왔으며 제다법도 다양하다. 현재도 각 지역의 제다인들이 제다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다채로운 제다법을 연구하고 있다⁴⁰⁾.

기본적인 제다방법으로는 첫째, 찻잎을 따는 채엽과정이 있으며 둘째, 실내에 펼쳐놓아 수분을 감소시키는 탄방과정 셋째, 증기로 찌거나 덜어 산화효소를 없애는 살청과정 넷째, 유념과정으로 비빔을 통해 식물세포벽과 막을 파괴하여 차를 우릴 때 각종 수용성 성분이 쉽게 우러나오도록 하고 찻잎 중의 수분을 고르게 한다. 마지막인 건조과정으로 차를 잘 말린 후 찻잎의 건조 상태에 따라 마지막에 적정 온도의 솥에서 수분을 날려 보내고 마무리를 한다.

본 연구자가 남양주시 위탁교육 ·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의 2013년, 2014년 전통차예절지도사과정 진행에 참여하였던 제다체험과정의 예시는 <사진 II-9>에서 <사진 II-14>이다.



<사진 II-9> 찻잎 따기



<사진 II-10> 델음 과정

40) 마경비(2008), 제다방법에 따른 녹차의 비교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7



<사진 II-11> 유념 과정 ①



<사진 II-12> 유념 과정 ②



<사진 II-13> 건조 과정



<사진 II-14> 품평 모습

④ 다식 만들기

다식은 일명 조과류(造菓類)라 총칭하는 것으로 밀가루, 찹쌀, 견과류 등을 주재료로 하고 여기에 꿀과 기름 등을 써서 만든 한국 전통음식의 하나로서 생과(生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공하여 만든 과일의 대용품이란 뜻이며 혼례, 제례와 같은 주요 의례와 연회, 다담상 등에 필수음식의 하나라고 『음식대관』⁴¹⁾ 3권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홍금이(2009)는 현대의 각종 사전류의 서술된 다식의 의미를 종합하여 정의하였는데, ‘다식은 녹말·콩·송화·검은깨·쌀·승검초·황밤·볶음 흰깨 등을 볶거나 짹서 뺏은 후 꿀이나 조청, 옛 등을 넣어 반죽한 다음 다식판에 찍거나 박아낸 것’⁴²⁾이라고 하였다.

다식은 신라시대 선덕여왕(632~647년) 때부터 차가 있었다는 견해에 따라 차 마시는 풍습이 상류층에 퍼지면서 차문화와 다식도 곡물의 발달과 함께 의례물 또는 다담상의 먹을거리로 올랐다. 그리고 다식은 ‘제유’로 ‘의례물’로 신에게 풍요를 빌거나 조상을 모시는 제사나 각종 의례시에 사용되었다.⁴³⁾

다식은 예로부터 문헌기록에 많이 나타났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31권, 8년(1426) 2월 12일에 선대부터 우리나라에 충성을 바치고 귀순한 대마주 종언칠에게 꿀, 대추, 잣, 밤 등과 함께 다식 2각을 하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⁴⁾

이의의 『성호사설』에 따르면 다식은 거여밀이조(秬粃蜜餌條 : 유밀과에 관한 조항)에서는 “차는 본디 물에 달여 마셨다. 그런데 송대(宋代)에는

41) 강인희 외(2000), 『음식대관』 3권, 한림출판사, p.289

42) 홍금이(2009), 茶食 發達 過程 研究 : 文獻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6

43) 김혜영·홍금이(2009), 다식의 맛과 멋,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16

44) 『朝鮮王朝實錄』 世宗 31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2月 12日(丙子) 自從先世, 輸誠來附。本曹敬奉王旨, 差大護軍李藝, 齋土宜?米平四十石前去, 惟照領。慈堂及祖母處付送土宜, 具在別幅, 一一轉上爲幸。慈堂?米平四十石 `乾?子二十貼 `乾大口魚二百首 `燒酒一十瓶 `乾青魚三百首 `清蜜三斗 `松子黃栗大棗各十五斗 `茶食桂各二角。

차 잎을 쪘서 일정한 무늬를 가진 틀에 박아 고압(高壓)으로 쪘내어 다병(茶餅)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을 말려두었다가 제사 때는 가루로 만들어 사발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서 대나무술로 훠저어 마신다. 이것이 점다(點茶)이다. 그러던 것이 점차 차 대신에 곡물에 꿀을 섞어서 반죽하여 다병을 만들듯이 다식판에 박아 내어서 제수로 쓰게 되었다. 그래서 이름만 다식으로 남아 있고 실물은 바뀌었다.”⁴⁵⁾라고 하였다.

다식은 한국의 전통을 나타내는 오방색을 띠는 재료를 발색재로 활용하여 반죽하여 태극문, 팔괘문과 같은 전통문양에 찍어서 만든다. 다식판에 찍어내는 전통다식은 만들기 쉽고 맛도 달콤하여 차와 어울려 다도체험과 함께 많이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아래 다식체험 사진 <사진 II-15>부터 <사진 II-20>은 본 연구자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성신여자대학교 어울림캠프로 외국인대상 전통문화교육에 참여하여 다식체험의 일부를 촬영한 것이다. <사진 II-21>부터 <사진 II-26>은 문화in⁴⁶⁾의 다식 사진자료를 활용하였다.



<사진 II-15> 다식체험 ①



<사진 II-16> 다식체험 ②

4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4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졸업생들로 구성된 전통문화컨설팅회사 ‘문화in’



<사진 II-17> 다식체험 ③



<사진 II-18> 다식체험 ④



<사진 II-19> 오방색 분말가루



<사진 II-20> 오방색 전통다식



<사진 II-21> 현대다식(화전 외)



<사진 II-22> 현대다식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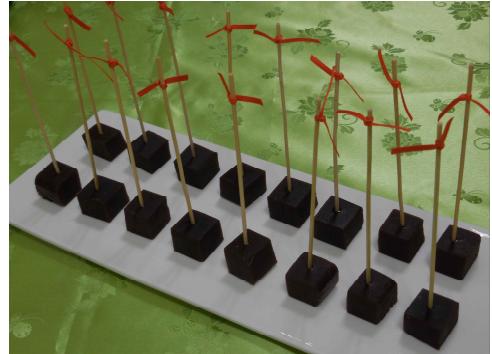
<사진 II-23> 현대다식 ②



<사진 II-24> 현대다식 ③



<사진 II-25> 대추 깨굴림



<사진 II-26> 양갱

2) 차문화와 MICE산업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국가의 사신이 방문했을 때 임금이 직접 차를 대접하는 접빈다례가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실에서 국가의 사신에게 공식적으로 접빈다례를 한 기록이 570여회나 기록되어 있다.⁴⁷⁾

「중종실록」, 4년(1509), 2월 6일을 보면 “신이 통사를 잡아 오는 일로 동평관에 당도하니, 통사가 왜인의 좌중에서 바야흐로 다례(茶禮)를 해하고 있었습니다.” 와 같이 일본 사신에게 다례가 행해진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신맞이 접빈다례뿐만 아니라 왕실의 대소행사에 차의례를 행하였다. 또한 회강다례(會講茶禮)로 왕세자가 스승과 시강원의 정1품 관리 및 봉객을 모아놓고 경서와 사기(史記)를 복습하며 강론하던 회강에서 다례를 행하고 술과 과일을 베풀었다고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⁴⁸⁾

조선후기 지식인 채제공(蔡濟恭, 1720 ~ 1799)의 <방서진사가(訪徐進士家)>라는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당에서 손님 맞는데 조금도 시끄러움이 없으니 / 영주에서 제일가는 가문임을 쉬이 알겠네. / 동서로 마주 앉아 인사하니 / 어린아이가 우전차를 올리네.” 와 같은데 집안 내 다사 교웅이 차를 달이는 일과 함께 차를 내는 접대예절이 교육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⁴⁹⁾

국제회의 시설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획자들은 회의장의 수 · 크기 · 질(1순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식음료 및 객실료 할인율(2순위) 그리고 음식서비스의 질이 3순위로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⁵⁰⁾ 기획자

47) 이상균(2012), 차를 권하다, 오픈하우스, pp.117-118

48) 오미정(2008), 차생활문화개론, 도서출판 하늘북, p.131

49) 한기정(2013), 18 · 19世紀 朝鮮 知識人의 茶文化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49

50) Meeting & Converntion Magazine, 1996

들이 국제회의 시설에 선택할 때 고려할 요인 총 17가지 중 ‘음식·서비스의 질’이 3위로 나타난 조사결과를 보다시피 국제회의장에서 차별화된 음식 서비스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대부분의 포럼, 미팅, 국제회의 등과 같은 행사는 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중간시간인 브레이크 타임에 간단히 음료와 요깃거리를 할 수 있는 식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커피와 서양식 디저트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특별한 식음료를 찾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음료와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성신여자대학교 주최로 진행된 찻자리 중심으로 사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시나 출판, 회의 또는 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차와 다식을 제공하는 찻자리를 준비한다. 대체로 전시나 회의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므로 전시나 회의장 입구로 사람들이 편히 입장 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해서 티테이블을 입구에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대체로 다양한 차와 다식을 맛볼 수 있도록 세 종류의 차와 다식을 준비한다. 테이블은 원형으로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각 테이블마다 준비된 차와 어울리는 다식 2~3가지, 이와 어울리는 다구, 테이블보(러너), 다크, 팽주(차우리는 사람)의 패션 스타일(한복 혹은 현대복)을 고려한다. 그리고 각각의 티 테이블을 맡아서 차를 우리는 팽주 외에도 짧은 브레이크 타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므로 수시로 찻잔을 썻고 가져다주며, 뜨거운 물을 준비하며, 다식 접시가 비어있지 않도록 다식을 서빙하는 인력을 넉넉히 배치한다. 또한 브레이크 타임끼리의 시간 간격과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는 정도의 차와 다식을 준비하거나 혹은 본 식사의 입맛을 더 돋게 해줄 차와 다식을 준비하여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회의나 전시 주관자들이 마련한 다른 부대시설에도 피해가 가지 않

도록 배려한다.

각종 학술대회, 국제회의, 출판, 공연, 전시, 이벤트, 개관 등의 성격과 어울리는 차와 다식을 바탕으로 차맛을 더 돋구어줄 일회용 찻잔이 아닌 도자기로 된 다구를 사용하여 친환경을 생각하고 테이블보의 색감, 다풍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참석자들과 주최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고품격 찻자리를 제공한다.



<사진 II-27> 찻자리 ①



<사진 II-28> 찻자리 ②



<사진 II-29> 찻자리 ③



<사진 II-30> 찻자리 ④



<사진 II-31> 찻자리 ⑤



<사진 II-32> 찻자리 ⑥



<사진 II-33> 찻자리 ⑦



<사진 II-34> 찻자리 ⑧



<사진 II-35> 세계검찰총장회의
환영 만찬 ①⁵¹⁾



<사진 II-36> 세계검찰총장회의
환영 만찬 ②⁵²⁾

51) 성신여자대학교의 제16차 국제검사협회 연례회의 및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 환영
만찬 공식문화행사 개최 사진 (성신여자대학교 뉴스 <http://new.sungshin.ac.kr/>)

52) 성신여자대학교의 제16차 국제검사협회 연례회의 및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 환영
만찬 공식문화행사 개최 사진 (성신여자대학교 뉴스 <http://new.sungshin.ac.kr/>)

3) 차문화와 교육산업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덕목 중의 하나는 부지런함과 함께 손님을 얼마나 잘 접대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들을 잘 접대하기 위하여 술과 차를 상비하여야 했다.⁵³⁾ 따라서 예로부터 여성의 인성 교육으로 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곽미숙(2015)은 “차의 물질적 성품에 따른 생리적 효능에 근거하여 정신적 기능과 차의 성품이 나오며, 행다를 통해 차의 성품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해 다례교육이 정서적 안정감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절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⁵⁴⁾ 또한 주영애·조선주(2009)는 차 교육 효과성을 다룬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대상과 연구내용에 따라 동향을 분석하였다.⁵⁵⁾ 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도 유아·아동, 청소년·대학생, 성인부터 장애인 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차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된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다양한 연구대상자에 따른 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효과성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박영자(2015)⁵⁶⁾는 다례와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한 유아전통문화교육 통합프로그램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높이고 정서지능을 함양 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조희선·이순실(2004)⁵⁷⁾은 다도교육이 청소년기에 있는 여고생의 인성

53) 「女四書」卷2, 「女論語」,待客章。

54) 곽미숙(2015), 청소년 통일·인성교육을 위한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차문화의 적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5) 주영애·조선주(2009), 차 교육 효과성 연구의 동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제24권 1호.

56) 박영자(2015), 유아 전통 문화 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3

57) 조희선·이순실(2004), 다도교육이 여고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 학회지 Vol.16 No.1 pp.1-17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인성영역 중 정서적 안정성, 배려성, 절제성, 예절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최배영 · 장칠선(2008)⁵⁸⁾의 대학생의 차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도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차문화 교육 경험은 없지만 차문화 교육과목 개설 시 수강여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차문화 교육이 대인관계 훈련과 자기관리 방안 구축의 교육목표를 두고 차문과 교양과목을 개설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또한 김경아(2012)⁵⁹⁾는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생활예절이 향상되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인지기능 등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주영애 · 최배영 외 3인(2012)⁶⁰⁾는 요가와 차 명상 중심으로 중년기 주부의 행복감 향상을 위한 심신통합프로그램을 개발 · 연구 결과 차 생활을 통해 심신의 안정 추구와 심신의 기능 조절이 프로그램 실시 후 높에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허난춘(2007)⁶¹⁾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성인들의 다도교육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정신적 · 행동적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공통교양강좌인 <성신인>의 일부로 다도를 활용한 인성예절교육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강의는 ‘난향 차와 함께하는 너와 나의 만남’ 이런 주제로 성신여대 교화인 난꽃을 가향

58) 최배영 · 장칠성(2008), 대학생의 차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도 연구, 한국차학회지 제 14권 제1호, pp.119-142

59) 김경아(2012), 차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0) 주영애 · 최배영 외 3인(2012), 중년기 주부의 행복감 향상을 위한 심신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요가와 차 명상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Vol.16 No.2 pp.77-101

61) 허난춘(2007), 평생교육 관점에서 성인 다도교육의 효과 분석,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 난향차를 정성(誠)과 진심(信)으로 우리며 성신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인성 탐색 및 타인과의 소통을 하는 목적에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난향차와 함께하는 너와 나의 만남’ 강의 시간 사진은 메트로신문 2014년 4월 23일 기사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진 II-37> 난향차 수업사진 ①⁶²⁾



<사진 II-38> 난향차 수업사진 ②⁶³⁾

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전통차예절지도사’라는 자격과정 및 자격시험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대학평생교육협의회의 ‘전통차예절지도사’ 자격과정은 우리의 전통차와 그에 따른 예절교육과 차 문화의 계승 발전의 목적을 두고 있다. 자격검정시험은 교육시간 수료와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교육센터로는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원, 동강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영남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영남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다.

본 연구자는 2013년 3월 12일부터 2013년 11월 5일, 2014년 3월 4일부터 2014년 10월 28일까지 남양주시청 위탁교육으로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한 ‘전통차예절지도사과정’에 조교로 참여하여 활동하

62) 메트로 신문(2014. 4. 23일자)

63) 메트로 신문(2014. 4. 23일자)

였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교육 사진을 <사진 II-39>부터 <사진 II-44>까지 제시하였다.



<사진 II-39> 교육 사진 ①



<사진 II-40> 교육 사진 ②



<사진 II-41> 교육 사진 ③



<사진 II-42> 교육 사진 ④



<사진 II-43> 교육 사진 ⑤



<사진 II-44> 교육 사진 ⑥

III. 제주도 차문화 산업의 특성과 현황

1. 차문화산업의 배경

제주도는 대륙(러시아, 중국)과 해양(일본, 동남아)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이다. 동경 126도 08분에서 126도 58분에 위치해있으며 북위 33도 06분에서 34도 00분위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는 동서로 약 73km, 남북으로 31km인 타원형 모양의 화산 섬으로, 섬 중심부에 높이 1,950m의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산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 지형을 자랑한다. 땅 위에는 크고 작은 368개 오름이 펼쳐져 있고, 땅 아래에는 160여 개의 용암동굴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작은 섬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오름과 동굴이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제주도는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3도에서 5도의 매우 완만한 경사이며 남북사면은 5도 정도로 약간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풍부한 동·식물을 거느린 산림과 계곡, 기암과 소연(沼淵), 기생화산과 분화구, 동굴과 초원 등 오밀조밀한 자연경관이 천혜의 아름다움을 빛어낼 뿐 아니라, 섬의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서 바닷가의 기암과 폭포, 백사장과 도서(島嶼) 등 해안 일대가 천연미의 절경을 이룬다. 이와같이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섬이다.

제주도의 토양은 차나무를 재배하기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손꼽힌다. 제주도의 토양은 칼슘과 마그네슘, 산화철 등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은 비

옥한 흑색 토양이다. 또한 제주도의 토양은 70%이상이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어 화산활동으로 의해 굳어져 생긴 현무암이며 토양 속에 미세한 틈이 있다. 이 틈은 차나무가 뿌리가 받는 압력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물이 잘 빠지고 많은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 녹차를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차나무를 잘 재배하기 위해서는 흙 뿐만 아니라, 기후도 매우 중요하다. 좋은 차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기온 $14^{\circ}\text{C}, \sim 16^{\circ}\text{C}$ 이어야 하고 겨울은 -6°C 이상이 좋다. 제주도의 연 평균기온은 16°C 내외이다. 하동은 연 평균기온은 14°C , 보성은 12.8°C 이다. 세부적으로는 제주시가 15.6°C , 서귀포시는 16.9°C 로 대체로 온난한 날씨이다. 또한 연 강수량이 $1,300\text{mm}$ 넘어야 차나무를 재배하기에 좋은 조건인데 제주도는 연 강수량이 $1,850\text{mm}$ 으로 하동 $1,789\text{mm}$ 와 보성 $1,458\text{mm}$ 에 비해 연 강수량이 높다. 세부적으로는 제주시는 강수량이 연평균 $1,584.9\text{mm}$ 이며 제주도 서귀포시는 $2,393.3\text{mm}$ 이다. 제주도 북쪽에 위치한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강수량이 더 많다. 마지막으로 물은 차를 재배할 때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제주도의 화산회토는 오염물질을 강하게 흡착하는 천연필터 기능을 하여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만들어 낸다.⁶⁴⁾

제주지역의 녹차산업은 ‘80년대 (주)장원산업이 기업적 경영을 시작한 이후,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농가형 차밭을 조성하면서 녹차산업이 시작되었다. 제주도에서 녹차 재배 면적은 1998년 107ha, 2000년 170ha, 2012년 338ha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녹차 재배지 면적 대비 제주도 녹차 재배지 면적은 10%이며 녹차 생산량은 179톤이다.⁶⁵⁾ 녹차 재배 농가는 2008년 기준 73농가, 2012년 84농가로 제주도의 녹차시장의 규모가 4,000억원 내외로 매년 5%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⁶⁶⁾

64) 제주도청 제주의 환경적 특성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http://www.agri.jeju.kr/>

65)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보도자료(2014.4.28) ‘제주녹차 소득향상 실용기술 현장 워크숍 열려’

제주도는 최고 수준의 흙, 토양과 온난한 기후와 높은 강수량으로 녹차재배를 위한 천혜의 환경 조건으로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녹차 재배는 하동과 보성지역보다 후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대비 10~20일 녹차 조기수확이 가능한 이점과 차밭의 규모화, 품종화, 기계화 등의 경쟁력을 갖추고 제주도의 차산업을 이어가고 있다.

66) 송인관(2011), 제주녹차 “에스그린” 미국 현지 소비자 반응결과, 제주농업기술원 농산물 원종장, p.1

2. 관광산업으로서 차문화 체험

제주도에서 제주도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차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조사하였다. 먼저, 1차적으로 선행논문과 차 관련 서적으로 통해 이루어졌으며 2차적으로 인터넷검색과 현장답사를 통해 가장 최근까지 차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5곳을 선정하였다. 2015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방문하여 체험 프로그램 진행자 혹은 담당 실무자와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면접 대상자로부터 기업 및 기관의 차문화 관련 체험 프로그램 및 사업 현황과 특징, 직원의 차문화 전공자 현황과 차문화 체험 프로그램 조사 등 객관적인 정보와 제주도의 차문화 산업 발전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까지 골고루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부득이하게 만나서 인터뷰를 못한 곳은 메일로 서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다. 기관 및 기업의 현황은 홈페이지, 보도 기사, 직접 방문하여 얻은 정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요약 정리하였다.

1) 오설록 티뮤지엄

1980년 무렵, (주)태평양은 창업주인 서성환 사장의 주도로 서귀포시 도순다원, 서광다원, 한남다원 등 총 43만 평이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다원을 조성하여 설록차를 상표로 하여 국내 차 생산을 시작하였다. 2001년 9월 ‘설록차’에서 ‘오설록’으로 바꾼 후, 차 생활 예절 보급에 힘쓰고 다시 출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차 종합 전시관 ‘오설록 티뮤지엄’을 개관하였다. 차문화를 체험하도록 추사 김정희가 차를 가꾸었던 유서 깊은 차 유적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서광다원 초입에 개관하였다. 제주 오

설록 티뮤지엄은 아모래페시픽의 아름다운 집념이 집약된 한국 차 문화의 발상지이다.

티뮤지엄은 공간은 크게 시공을 초월한 문화공간,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차문화를 이해하는 체험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오설록 티뮤지엄은 오설록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보여주는 스토리공간, 차문화 체험공간인 티스톤, 차문화의 역사와 다구들을 전시해 놓은 전시실, 차를 냉는 과정을 보여주고 시음할 수 있게하는 냉음차 공간, 상품을 판매하는 티샵 그리고 차를 마실 수 있는 티하우스, 전망대와 야외테라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설록의 내부 구성사진은 2015년 11월 24일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자가 찍은 사진이며 다음과 같다.



<사진 III-1> 제주 오설록 차밭



<사진 III-2-2> 제주 오설록 입구



<사진 III-3> 전시실 ①



<사진 III-4> 전시실 ②



<사진 III-5> 전시실 ③



<사진 III-6> 녹차 활용방법 소개



<사진 III-7> 덕음차 공간



<사진 III-8> 시음 공간



<사진 III-9> 티하우스



<사진 III-10> 티샵



<사진 III-11> 2층 전망대



<사진 III-12> 3층 오픈 전망대

다음은 오설록 티뮤지엄 실무진을 만나서 질문한 내용이다. 조사 대상자의 소속 부서는 영업팀이었고, 직급은 과장이었으며 30대 여성이었다. 질문 방식은 먼저 질문지를 드리고 약속 날짜를 정하여 2015년 11월 24일에 만나 약 20분 동안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오설록 인터뷰 내용

구분	질문	대답
1.	년 방문객수와 외국인 관광객 비율	1년에 약 140만명 외국인 관광객 35~40%
2.	티스톤 이용객 수	2013년 3월 오픈 2013년: 1,065회 / 6,359명 2014년: 1,552회 / 13,844명 2015년(11월까지): 1,390회 / 16,149명
3.	직원 수	티뮤지엄 18명 티스톤 3명

구분	질문	대답
4.	직원의 차문화 전공자, 관련자격증 소유 또는 연수경험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뮤지엄 <p>대학교에서 차경영을 전공한 학사졸업 1명, 다도사범자격증 11명, 예절사지도사자격증 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스톤 <p>다도사범자격증 3명, 예절지도사자격증 2명, 차문화심리치료사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F&B탐방 7명, 대만 F&B탐방 2명
5.	직원 채용 시 차문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p>자격증 필수 아님</p> <p>회사내에서 직원들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 할수 있게 지원해줌(차 외에도 와인, 커피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지원)</p>
6.	차문화 전문기획자 양성 계획 여부	<p>티뮤지엄 직원들이 전문기획자임</p> <p>티스톤 직원들은 차 전문가로써 적합학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중임</p>
7.	제주도청의 지원여부	VIP방문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지만 사실적으로 없음
8.	제주 차문화에 대한 방문자들의 관심도	<p>설문조사 실시하지 않아 자세히는 모름</p> <p>하지만, 티뮤지엄과 티스톤 재방문율 40%, 10%.</p> <p>대부분 주변사람들에게 추천이 많음</p>

구분	질문	대답
9.	심화된 차문화 교육과 정 계획 여부	1회성 체험 말고 정규과정은 아직 계획 없음 기존 프로그램 안정화가 된 후 5회 이상 교육운영 고려중 직원의 사내 교육 후 자격증 제공도 검토중
10.	제주도 차문화 관련 협회와의 교류여부	교류는 없지만 민간단체들과 함께 모여 벤치마킹하고 의견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의향 있음
11.	제주도 차관련 포럼 개최 여부	제주도에서 국제 녹차심포지엄 꾸준히 주최하고 있음
12.	제주도 차문화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과 매출증대가 아닌 기업홍보와 제주도의 차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유배길 청소 등과 같은 활동으로 제주도, 추사김정희, 차와 인연을 이어가는 중 · 제주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차문화 치료봉사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꾸준한 활동으로 제주도의 차를 알리는데 노력할 것임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제주 오설록 티스톤의 개관 후 서울 인사동 티스톤이 생김. 곧 서울 현대미술관에도 오픈할 예정 · 2018년에는 제주도에 VIP를 대상으로 한 그린뷰티밸리를 개관합니다. 녹차를 활용한 고급 휴양지로 제주용암해수, 찻잎을 활용한 스타, 다도체험 등을 도입할 예정 · 제주 오설록을 다녀간 관광객들이 차에 대한 관심이 생기길 바람
------	--

(위의 인터뷰 자료는 2015년 11월 24일에 얻은 내용임)

인터뷰 후 오설록 티스톤의 다도체험 프로그램 참가 하였으며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2015년 11월 24일 16시~17시(약 1시간 소요) · 장 소: 오설록 티뮤지엄내 티스톤 · 참 가 비: 15,000원 · 교육인원: 총 8명(2명씩 네팀으로 이루어져서 체험 진행) · 공간구성: 1층 화장실, 사무실, 발효차 보관창고, 2층 갤러리 대기실, 준비실, 체험장 · 다 구: 개인당 셋팅 (다관,다완,찻잔 2개, 다관뚜껑받침, 다식접시와 다식2개, 보온 물통, 찻잎 세종류, 퇴수기는 2인 같이 사용)
--

티스톤은 티뮤지엄 건물 옆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체험장 입장 전에 기다리는 곳에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와 추사체의 미디어영상을 볼 수 있다. 체험장에 들어서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넓직한 유리 전면 창문과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의자와 테이블이다. 뒤편에는 참가자들의 옷과 가방을 둘 수 있는 긴 벤치가 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잔잔한 자연의 소리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온다. 전문교육을 받은 현대적인 의상을 입은 티소믈리에의 인사를 시작으로 체험이 진행된다. 2인이 한팀으로 구성되어 각자 다구셋트를 가지고 진행된다.

교육구성은 처음 다구 이름과 쓰임새 설명, 세 종류의 찻잎 소개로 시작되었다. 블렌딩차(‘제주 벚꽃향 가득한 올레’라는 이름의 차), 제주 녹차 덕음차, 제주 녹차 증제차 이렇게 총 세 가지이며, 블렌딩 차는 아이스차로, 나머지를 직접 우려서 먹는 시간을 가진다. 차를 우리는 순서를 알려주며 티소믈리에와 참가자가 함께 우린다. 차를 우릴 때 적합한 물의 온도, 차의 성분, 찻잎의 중량도 간략히 안내를 해준다. 사람들이 전면 유리창 너머 자연을 느끼며 차를 먹을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며 천천히 진행된다.

교육 종료 후 함께 다도를 참가했던 참가자들에게 간략한 질문을 하여 참여동기 및 느낀점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자를 포함해 티스톤 프로그램 참가자는 총 8명이었고 4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팀은 모녀사이로 관광객이었으며 전에 다도체험 경험은 없고 지인의 추천으로 참가했으며 다시 참가할 의향은 없지만 주변에 추천은 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심화된 차 교육은 관심 없고 제주도의 다도체험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였다.

2팀은 30대 부부로 앞팀과 마찬가지로 처음 다도체험을 해보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참여하였다. 관광객이며 지인추천 의향은 있고 만약 1회성이 아닌 장기 교육과정이 생긴다면 할 생각은 있지만 너무 깊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다. 차에 대해 공부한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감이 안 잡힌다고 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다른 다도 체험장은 모른다고 하였다.

3팀은 20대 여성으로 혼자 여행온 관광객이었다. 마찬가지로 다도체험 경

힘이 없고 제주도의 다른 다도 체험장 정보를 모르며 심화 교육은 할 생각 없고 1회로 만족한다고 하였다. 주변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으며 본인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4팀은 30대 부부였으며 관광객이었다. 지인의 추천으로 왔고 남편이 커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차에 대해서도 체험을 해보고 싶어 왔다고 하였다. 이번 체험이 처음이고 심화교육과정이 있다면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제주도의 다른 다도체험장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였다,

네팀의 다도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티스톤 참가자 의견

	1팀	2팀	3팀	4팀
성별	여성	여성/남성	여성	여성/남성
나이	50대/20대	30대/30대	20대	30대
관계	모녀	부부	혼자	부부
방문목적	관광	관광	관광	관광
참여동기	인터넷 검색	인터넷 검색	지인 추천	인터넷 검색
과거 다도체험 경험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재참여 가능성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추천 의향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제주도내 다른 다도체험장 존재 인식	모름	모름	모름	모름
심화 차 교육과정 관심도	없음	5회 과정은 가능함	없음	고려해보겠음

(위의 인터뷰 자료는 2015년 11월 24일에 얻은 내용임)

티스톤 교육장 사진은 본 연구자가 2015년 11월 24일에 프로그램에 참

여하여 찍은 자료이며 다음과 같다.



<사진 III-13> 티스톤 외부 전경



<사진 III-14> 티스톤 체험장 모습



<사진 III-15> 다구 셋팅 모습



<사진 III-16> 제공된 찻잎



<사진 III-17> 티스톤 내부



<사진 III-18> 교육하는 티소믈리에



<사진 III-19> 남은 찻잎 포장



<사진 III-20> 발효차 저장 창고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은 대기업이라는 특성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넓은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티뮤지엄 인근에 다원이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티뮤지엄과 조화롭고 차 문화관으로서 써의 분위기를 살려준다. 주영애 · 고운호 · 이향숙(2010)⁶⁷⁾논문에서 ‘오설록 티뮤지엄의 활성화 방안으로 녹차의 음용에서 벗어나 의 · 식품의 효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와 치유시설 건립’을 제안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시설이 2018년 제주도에 다도와 스파 그리고 심리치료가 함께 제공되는 VIP대상 그린뷰티밸리가 조성된다고 인터뷰를 통해 실무자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은 기업의 특성상 상업성이 과다하고 전체적인 티뮤지엄의 건물분위기와 전시관 조성에 비해 티샵과 식음료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티하우스가 어수선해 아쉽다. 그리고 티하우스 규모에 비해 제주녹차를 소개하는 공간과 차의 제조과정 소개, 녹차를 활용하는 방법 안내 브로셔 배포장소, 뒤음차 시음 공간 등과 같은 차문화를 알리는 곳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 해결방법으로 제주 녹차 소개나 녹차 활용방법이 소개된 브로셔

67) 주영애 · 고운호 · 이향숙(2010), 茶를 활용한 제주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등을 티하우스 테이블 주변 또는 판매대 옆 배치가 있다.

티스톤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어 티뮤지엄에 비해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듦다. 티스톤 건물과 인테리어, 배경음악 그리고 직원들의 서비스가 잘 어울려지고 마치 고급 리조트에 온 듯 편안한 느낌을 준다. 아쉬운 점으로는 티소믈리에 마다 체험을 제공하는 방식이 달라서 고객 만족도의 격차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객 대상의 프로그램뿐만 아닌 오설록 주최의 제주도내 주민들을 위해 티스톤 개방을 하여 차 체험을 포함한 차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지역내 기업의 차문화 기여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오설록이 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차문화 치료 봉사활동 및 유배길 청소와 녹차포럼의 공연활동 외에 제주도의 민간 다원과 연계하여 제주 녹차 상품 홍보와 판매를 지원해 준다면 제주도의 지역발전 기여와 함께 오설록의 기업이미지의 상승으로 제주도 오설록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희연

제주도 다희연의 내용은 홈페이지, 보도 기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진은 2015년 11월 24일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찍은 것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덕이 제주시 조천읍에 대단위 녹차밭을 조성하고 재배한 녹차브랜드 다희연 선보였다. 다희연은 복합 녹차 테마 공원으로 6만평 대지에 이스라엘식 관수 시스템을 갖추고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여 100% 무농약 유기농으로 녹차나무가 재배되고 있다. 특히 녹차밭이 조성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는 2007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자락에 걸쳐 있어 천혜의 자연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다희연은 시설로는 전시관, Gift Shop, 다례 교육실 겸 세미나실, 짚라인 체험공간, 녹차밭, 레스토랑 그리고 동굴카페, 녹차 족욕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중간에는 산책로 조성이 잘 되어있다. 또한 유기농 녹차밭을 친환경 전기카트로 둘러볼 수도 있다.

동굴의 다원 다희연에 들어서는 순간 끝없이 펼쳐져있는 초록 빛깔의 녹차밭을 먼저 마주하게 된다. 다희연의 청정 녹차밭은 2005년 2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쳐녀림을 개간해 만든 것으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 부지매입 후 1년여간 유기농 녹차를 위한 터 다지기를 한 후 2006년부터 녹차나무를 심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다희연의 녹차나무는 유독 키가 크지 않다. 다희연 박영순 회장은 화학비료·농약·제초제를 쓰지 않는 삼무(三無) 원칙을 지킨 까닭에 녹차 나무가 1년에 6cm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난쟁이 녹차나무’가 다희연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수 천년의 자연의 기운을 간직한 천연동굴인 다희연의 동굴카페에

서 신비한 용암동굴의 기운을 받으면 차를 마실 수 있다. 현재 거문오름 용암동굴을 만장굴을 제외하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다희연 동굴카페는 거문오름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장소이다.

다례를 배울 수도 있으며 시청각실 그리고 세미나실로 이용되는 차문화공간이 있으며, 녹차를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 메뉴로는 녹차 돈까스, 녹차 해물뚝배기, 녹차비빔밥 등이 있다. 그리고 다희연의 녹차와 기타 다양한 잡화를 살 수 있는 Gift Shop이 있고 그 옆에는 차의 역사와 효능을 설명하고 다구를 전시해둔 차문화관과 녹차 족욕 체험장이 있다. 그리고 녹차 밭 위로 가르는 다이내믹한 스텔과 재미를 경험 할 수 있는 짚라인 체험 공간이 외부에 마련되어 있으며, 녹차 밭을 둘러 볼 수 있는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전망대를 비롯한 그네공원, 연못, 징검다리 등 많은 볼거리를 찾을 수 있다.



<사진 III-21> 다희연 박물관 외부



<사진 III-22> Gift Shop



<사진 III-23> 다희연 녹차 판매대



<사진 III-24> 차문화관



<사진 III-25> 짚라인 ①



<사진 III-26> 짚라인 ②



<사진 III-27> 동굴카페 입구



<사진 III-28> 동굴카페 내부



<사진 III-29> 레스토랑



<사진 III-30> 녹차 족욕 체험장



<사진 III-31> 녹차 밭



<사진 III-32> 전기카트

다희연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에 인접해 있어 관광객이 접근하기에 용이하고 국내 유일 ‘천연동굴카페’ 와 유기농 녹차 밭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좋은 곳이다. 하지만 자연경관의 우수성 외에는 녹차 식음료 메뉴의 부족, Gift Shop의 관리 소홀로 다희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구매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친환경 녹차 밭을 가르는 짚라인의 운영과 전기카트로 녹차 밭 투어와 같은 스포츠 연계 차문화 관광 상품이 잘 운영되고 관광객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차문화와 짚라인 · 전기카드가 실제 연계상품으로써의 안내 문구나 소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아쉽다. 체험 비용은 입장료와 식음료에 비해 다소 비싼편이다. 그리고 Gift Shop에 차 상품 외에도 차와 관련 없는 의약품 · 미용제품 및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어 다희연의 녹차 브랜드 정체성을 알 수 없어 아쉽다. 다희연은 주차장 시설과 우수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 녹차재배로 관광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차문화 체험 복학장소이다. 그런 만큼 다희연은 다희연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녹차 품질을 통해 제주도 차문화를 알리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친환경 녹차 밭 외에도 Gift shop과 레스토랑, 세미나실, 전시관이 있는 내부 시설 관리와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교육과 함께 녹차를 활용한 다양한 식음료 메뉴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3) 제주다원

제주다원은 민간이 다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으며 녹차테마파크와 티하우스, 제다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녹차테마파크는 차나무로 되어있는 다원을 미로공원으로 구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미로처럼 되어있는 차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조성해 두었다. 그리고 녹차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녹차테마파크에는 차문화전승관이 있고 그 곳에는 차시음장, 도자기전시실, 고재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다원은 매년 제주다원 주최로 ‘제주차 만들기 대회’를 열고 있으며 제주도 차문화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주다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사진 III-33> 제주다원 차밭⁶⁸⁾



<사진 III-34> 제주다원 티하우스⁶⁹⁾

68) 제주다원 홈페이지 <http://www.jejugreentea.co.kr/>

69) 제주다원 홈페이지 <http://www.jejugreentea.co.kr/>

3. MICE산업과 차문화 행사

제주도는 1997년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JEJU)의 설립과 함께 제주 지역의 MICE가 도입되었다. 제주도의 국제회의 2003년 10건, 2015년도에는 2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지역의 MICE행사는 외국인 참가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고 개최 기간이 길어 경제적 파급효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⁷⁰⁾ 제주도청 문화관광스포츠국 부서에 MICE산업팀이 조성되어 있으며 제주도 국제회의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15년 11월 25일에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1회 2015 제주MICE산업대전'이 열렸다.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목적을 가진 이해 당사자가 모여, 대면 마케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를 가지는 협회회의 시장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며 MICE산업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국제적인 MICE산업 위상에 맞는 제주도의 특별한 부대시설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1)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기술하였으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제주농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삶의 질 향상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용성 있는 농업 기술은 연구하고 보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산하 센터이다. 서귀

70) 허정옥 외, 전계서, pp.52-53

포농업기술센터 외에도 제주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가 있다. 이중에서 차문화 관련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남원읍에 위치해 있으며 감귤을 비롯한 서귀포농업을 알리고 기술보급 등의 일을 하는 곳이다. 또한 농업생태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체험교육장 운영사업도 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농기계 교육장·농업인 교육관·농업미생물 배양실·유리온실·농업인 정보화 교육실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생태원은 감귤품종전시실·천연염색 체험장·농특산물 홍보관·허브동산·키위터널·우엉텃밭·녹차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힐링의 시간, 차(茶) 만들기 참여하세요.’라는 행사명으로 차문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본 조사는 2015년 11월 27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이자 차문화 행사 담당자인 실무자와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프로그램 안내와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및 관련사진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해주어 본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힐링의 시간, 차(茶) 만들기 체험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녹차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4>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인터뷰 내용

구분	질문	대답
1.	녹차체험 처음 시행 년도	2007년
2.	년도별 진행 횟수와 참가인원	2011년: 8회 체험 / 99명 참가 2014년: 8회 체험 / 177명 참가 2015년: 10회 체험 / 406명 참가

구분	질문	대답
3.	체험의 진행 의도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내 농업생태원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 · 도시민들의 농업체험 활동 제공 · 녹차의 효능 및 소비 촉진 목적 · 센터 내 농업생태원의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
4.	도청 및 시청의 지원 여부	<p>없음</p> <p>자체 예산으로 행사 추진</p>
5.	체험 진행자의 차관 력	<p>자격증 없음</p> <p>서귀포농업기술센터 육성 품목별연구회 중 서귀포시 차 연구회에 교육을 요청하여 진행자 섭외</p>
6.	프로그램 구성	<p>총 3시간 프로그램</p> <p>30분: 녹차 유래 및 효능교육</p> <p>1시간: 차순 수확</p> <p>1시간: 녹차 닦고 유념과정</p> <p>20분: 다례시연</p>

(본 인터뷰 내용은 2015년 11월 27일 전화와 이메일로 얻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해준 「2015년 녹차 체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참가했던 총 참가자 406명 중 84명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응답을 하였고 전반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체험행사 신청인원은 단체가 72%, 개인이 28%로 단체 체험자가 많았으며 체험행사 접하게 된 경로로는 주위 사람의 권유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31%, 기타 24%, 인터넷 기사 및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람은 8%였다.

강사의 강의법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77%, 조금 만족 13%, 보통 10%로 나타났다. 녹차 체험내용에 대한 만족도로는 매우 만족이 81%, 조금 만족이 14%, 보통이 4%, 매우 불만이 1%로 조사되었다.

다음번 녹차 체험 참여의향 질문에는 참석하겠다는 사람은 90%이고 참여

하지 않겠다는 10%로 조사되었다.

적당한 녹차 체험시간으로는 3시간이 45%로 가장 많았고, 2시간 27%, 4시간 16%, 6시간 이상 7%, 5시간 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대는 59%는 여성이며 41%는 남성이었으며 50대가 30%, 60대가 27%, 40대가 22%, 30대 9%, 10대 미만 5%, 10대 4%, 70대 2%, 20대 1%로였다.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주부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공무원, 기타, 회사원 순이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녹차 체험에 참여한 횟수로는 1회가 92%로 가장 높았으며 2년째 참여한다는 사람은 4%, 3년 이상이 4%였다.

참여자들의 체험 소감 및 건의사항으로는 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으로는 체험행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관공서 및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해달라는 건의와 체험 장소를 찾기 쉽게 안내표지판 설치, 체험의 유료화 등으로 알 수 있었다.

교육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론 강의 시간 확보와 전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강의, 체험 과정시간의 촉박함, 수확한 녹차 잎에 가져가는 방안 구축, 녹차 외 다른 차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통적인 찻자리 마련과 녹차 잎을 활용한 요리 소개, 차 연구회 가입경로 안내, 기술센터 탐방 및 안내가 있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녹차원의 보유와 다양한 공간 세분화로 한 장소에서 제다체험부터 교실에서의 이론 강의, 차 시음까지 가능한 이점이 있다. 녹차 체험에 앞서 제다방법과 차 시음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농업에 관련한 기술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므로 기술자들로부터 녹차 재배 및 기술에 관련하여 간략히 들을 수 있는 시간대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제주도의 녹차 산업에 대해 이해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III-35> 이론 강의⁷¹⁾



<사진 III-36> 찻잎 수확⁷²⁾



<사진 III-37> 덮는 과정⁷³⁾



<사진 III-38> 유념 과정 ①⁷⁴⁾



<사진 III-39> 유념 과정 ②⁷⁵⁾



<사진 III-40> 차 시음⁷⁶⁾

-
- 71)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공
 - 72)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공
 - 7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공
 - 74)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공
 - 7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공
 - 76)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공

2) 탐라차문화원

탐라차문화원의 연혁, 사업내용, 공간구성 등에 관해서는 인터뷰, 보도자료, 문화원 브로셔를 참고하였으며 사진은 탐라차문화원 제공한 자료와 본 연구자가 2015년 11월 24일 직접 방문하여 찍은 사진을 활용하였다.

탐라차문화원은 서귀포시 회수동에 위치해 있으며 1999년 8월에 ‘한국 다도협회 다솔지부’로 지부처음 개소하였다. 2000년 탐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전통차예절지도사과정을 수료한 수강생 10명이 뜻을 함께 하여 다솔지부내에 ‘다솔회’를 신설하여 다례시연, 다도체험, 시음행사, 국제 차문화 교류, 사랑나눔 행사, 차문화 기행 등 다양한 차문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2008년 9월에 사단법인 탐라차문화원으로 정식 개소식을 이사장 이순옥의 뜻을 이어받아 이연정 원장이 이사장과 함께 지금까지 차의 우수성 연구 및 홍보, 다도 교육을 통한 차문화 저변확대, 차문화와 제주문화 연계, 차문화 국제교류를 위해 앞장서서 운영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도 및 예절인성교육, 차문화 서적 출판, 제주 야생차 및 다식 개발 및 보급, 차를 재료로한 천연염색, 차문화 답사, 국제 교류, MICE산업 티브레이크 개발 및 부대시설 지원 등 차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탐라차문화원은 체험장과 갤러리, 조리 준비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III-41> 체험장 입구(77)



<사진 III-42> 체험장 ①(78)



<사진 III-43> 체험장 ②⁷⁹⁾



<사진 III-44> 체험장 ③⁸⁰⁾



<사진 III-45> 갤러리⁸¹⁾



<사진 III-46> 조리 준비실

2015년 11월 24일에 탐라차문화원 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으며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5> 탐라차문화원 인터뷰 내용

구분	질문	대답
1.	년 방문고객수와 외국 관광객수	1년에 600명 체험목적으로 방문 외국인은 300명

-
- 77)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 78)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 79)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 80)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 81)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구분	질문	대답
2.	직원현황	<p>이사장 1명, 원장 1명, 사범(회장 2명, 부회장 3명, 총무, 후원회원, 자문회원으로 구성)</p> <p>사범은 수료한 1000명중 1급 이상 자격자로 구성</p>
3.	다도체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구 1셋트당 2인에서 최대 5인이 함께 사용 · 다구 이름과 쓰임새 설명, 물의 온도, 찻잎과 물을 넣는 순서 종류, 차 우리는 방법, 주인과 손님의 예절 ‘배려’ 중심으로 설명으로 구성 · 제주재료로 만든 다식으로 직접 만들어서 함께 제공 · 프로그램은 1시간(다도체험만), 2시간(다도체험과 다식체험 함께)로 구성 · 외국인은 대체로 1시간 체험이 많고 특히 외국인들은 제주다식을 보고 정성과 모양에 감동을 많이 받음
4.	직원의 차문화 전공자 또는 관련자격증 소유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 및 원장은 차문화 관련 자격증 다수 보유 및 원장은 예절다도학 석사학위취득 · 사범으로 구성된 직원은 전공자는 없고 문화원에서 차를 배우고 수려한 사람들임
5.	차문화 전문기획자 양성 계획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내에 차전문가 양성반으로 연수반, 연구반, 사범1급~3급반으로 있음 · 사범들이 문화원에서 이 자격을 수료하고 내·외부에서 차 강의를 하고 있음 · 앞으로도 꾸준히 양성 계획 있음
6.	제주도 지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지원 없었음 ·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 또는 시청으로부터 문화체험 지원금을 받아 온 적 있음 · 문화원에서 국제 차문화 교류를 위해 해외에 나갈 때 제주도청이나 서귀포시청의 공모 후 당첨이 되어 예산을 받은 적 있음

구분	질문	대답
7.	문화원 사업 소개 (다도 및 다식체험 외의 것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10월 <차와 함께하는 힐링토크 콘서트>를 제주도민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 · 차문화 국제교류 · MICE산업의 티브레이크 사업
8.	제주 차문화에 대한 방문자들의 관심도	<p>거의 없음</p> <p>체험자들 대부분이 차에 대한 지식 전무한 경우가 많고 체험 후 적당한 온도로 차를 우려먹은 후 맛있어서 놀라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고 가는 사람 많음</p>
9.	다양한 차문화콘텐츠 프로그램중 반응이 제일 좋은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를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선호함.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고 위안을 받고 가는 느낌이라고 표현함 · 아이들 대상으로는 다도프로그램을 통해 배려를 많이 배워가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반응이 좋음
10.	1회 체험 후 정식 등록 하는 경우 유무	대부분 관광객들이 체험을 와서 지리적, 접근성 불편함으로 정규과정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11.	체험 대상자	<p>개인보다 단체가 많음</p> <p>기업체 임원 연수, 외국인 단체 관광, 국제회의 참가자, 국내외 기자 등 참가 대상자 수준이 높은 편</p>
12.	단체관광객 유치 비결	여행사에 직접 기획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그로인해 연결된 경우가 다수임

구분	질문	대답
13.	제주도 차문화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차문화 발전을 위해서 관광상품에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단순이 즐기고 가는 저렴한 관광이 아닌 돈을 좀더 지불하고 고품격의 제주문화를 익히고 가는 차문화관광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도의 좋은 물과 야생차는 매우 우수하므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14.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에 차문화를 접목시킨 것처럼 MICE에 차문화를 접목시켜 국제회의에 커피브레이크 대신 티브레이크를 하고 있음 · 제주에서 개최된 MICE를 더 돋보이게 하고, 제주 문화를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만 와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하여 제공할 예정임

(위의 인터뷰 내용은 2015년 11월 24일에 얻은 내용임)



<사진 III-47> 어린이 교육⁸²⁾



<사진 III-48> 외국인 다도체험⁸³⁾

82) 탑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83) 탑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사진 III-49> 티브레이크 셋팅⁸⁴⁾



<사진 III-50> 제주 다식⁸⁵⁾



<사진 III-51> 감글정과⁸⁶⁾



<사진 III-52> 버섯정과⁸⁷⁾



<사진 III-53> 티브레이크
홍보부스⁸⁸⁾



<사진 III-54> 국제포럼 브로셔⁸⁹⁾

84)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85)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86)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87)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탐라차문화원은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부대시설로 커피브레이크 대신 티브레이크를 제주 국제회의 주최 측에 차문화를 보급하고 있으며 참가자들 또는 기자들에게 제주도의 고품격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도 및 다식체험으로 인해 한국의 예와 배려를 알려주고 제주도 녹차와 야생차, 감귤 또는 한라봉 등으로 만든 제주 특산 다식을 선보이고 있다. 탐라차문화원의 티브레이크 모습은 다음 사진과 같으며 탐라차문화원에서 제공 받은 자료이다.



<사진 III-55> 티브레이크 ①⁹⁰⁾



<사진 III-56> 티브레이크 ②⁹¹⁾

탐라차문화원은 중문 관광단지와 인접해있어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자동차와 대형버스가 주차 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용객이 편리한 이점이 있다. 이사장과 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내부 직원들인 사범이 대부분 차문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수료하여 차와 관련된 전문성이 높다. 그리고 다도체험이 특히 활성화 되어있어 경험이 많은 지도자로 매우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개인뿐만 아닌 단체 국내외 관광객과 기업체 그리고 MI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및 티브레이크

88)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89)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90)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91) 탐라차문화원 제공 사진

의 기획력과 홍보력이 우수하다.

아쉬운 점으로는 탐라차문화원은 직업이 있는 사범들도 직원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말 외에 문화원 사업 진행시 일의 분업화의 어려움과 인력부족 초래 가능성이 있어 조직을 개편하면 탐라차문화원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차문화 복합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및 제주 야생차 및 제주 다식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탐라차문화원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제주도의 차문화 교육

1) 추사관

제주도의 차문화 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추사 김정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사관은 김정희의 유물을 전시해 놓은 대표적인 전시관이다.

추사관의 내용과 사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추사관은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와 추사 김정희의 유물 등을 전시해 놓은 추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사관은 2010년 5월 13일 개장하였고 면적 1,192m²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되어있다. 건축가 승효상이 세한도 (국보 제180호)를 모티브로 형식에 얹매이지 않고 장식적인 요소와 기교를 절제한 후 추사선생의 정신세계를 담아 설계되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1-1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있다. 1984년 건립된 추사유물전시관이 노후된 시설과 추사 김정희 유배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재건립되었다. 추사 김정희 유배지는 사적 제487호로 2007년 10월 10일에 지정되었다. 추사관 내 전시관에 있는 대표적인 유물로는 예산 김정희 종가 유물일괄로 보물 제547-2호가 있고 추사 현판 글씨, 추사 편지글, 추사 지인의 편지글씨 등 총 105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는 영조의 사위였던 월성위 김한신의 종손으로, 조선 순조 19년(1819)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대상성, 이조참판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러나 조선 헌종 6년(1840) 55세 되던 해에 동지부사로 임명되어 중국행을 앞두고 안동김씨 세력과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유배 초기에 포도청의 부장인 송계순의 집에 머물다가 몇 년 뒤 현재의 유

배지로 지정된 강도순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이 집은 1948년 제주도 4.3사건 때 불타버리고 빈 터만 남았다가 1984년 강도순 종손의 고증에 따라 다시 지은 것이다. 추사 김정희는 이곳에 머물면서 추사체를 완성하고, <완상세한도>(국보 제180호)를 비롯한 많은 서화를 그렸으며, 제주지방 유생들에게 학문과 서예를 가르치는 등 많은 공적을 남겼다. 차를 매우 좋아한 추사 김정희는 다승 초의선사와 평생 우정을 나누었으며, 제주의 차 문화에 있어 선구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사진 III-57> 추사 김정희 유배
지92)



<사진 III-58> 추사관 전시관 내
부93)

추사관에서는 다도 체험을 통해 차를 좋아했던 추사 선생을 기리고, 추사 선생의 제주 유배 생활에 대해 이해하며, 관람객이 힐링(Healing)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이야기가 있는 다도체험’ 이란 주제로 차문화 체험을 매년 봄에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26일 추사관 담당 50대 7급 공무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약 20분이 소요되었으면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92)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93)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표 6> 추사관 인터뷰 내용

구분	질문	대답
1.	다도체험 처음 시행 년도	2012년 4월
2.	프로그램 횟수 및 이 용자 수	매년 4월~6월, 매주 토요일마다 4회 운영 2015년: 44회 / 200명 참가 (2014년 학예사 휴직으로 체험 진행 못함)
3.	대상자	도민 및 관광객 모두 대상자이지만 대부분 관광 객이 참여하였음
4.	프로그램 구성	30분 프로그램 추사관인만큼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과 함께 제 주 녹차 우린 후 시음(다식 제공)
5.	다도체험 기획 의도	추사 김정희와 연계되는 체험프로그램 고민중에 상반기는 탁본체험, 하반기는 다도체험을 기획하 게 됨
6.	시청 및 도청의 지원	서귀포 시청의 예산(200만원:강사료 별도)으로 진행
7.	추사관 직원 현황 및 차문화 관련 경력	· 추사관 직원은 총 3명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 지원국 문화예술과 소속 공무원 2명 행정업무, 1명 학예사(현재 휴직상태) · 다도체험 강사: 서귀초시 관내에 있는 강사로 채용을 하며 관광문화해설가이자 서예가, 다도협 회장임
8.	참가자들 만족도	100% 만족 차를 우리는 다도체험만 하는 것이 아닌 추사 김 정희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체험을 진행하여 아주 몰입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음
9.	앞으로의 차문화 체험 프로그램 계획	당분간은 ‘이야기가 있는 다도체험’ 을 매년 진 행할 예정

(본 인터뷰 내용은 2015년 11월 26일 전화로 얻음)

아래 참고 사진은 본 연구자가 2015년 6월 13일 추사관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였다.



<사진 III-59> 이야기가 있는
다도체험



<사진 III-60> 다도체험 공간

제주 추사관은 추사 김정희가 다도의 대가인 초의선사와 평생 우정을 나누며 제주의 차 문화를 도입한 선구자로써 다도체험을 하는 곳으로 최적의 장소이다. 추사 유배지와 함께 새로 개장한 추사관과 역사적인 유물을 보다 보면 추사 김정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곳이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전시관을 다 둘러보고 나와서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서적이나 관광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아쉬웠다. 다구를 조금 팔긴 하지만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진열이 정돈되지 않아서 보기 좋지 않았다. 그리고 다도 체험장은 좌식으로 정갈한 분위기로 조성이 되어있었다. 추사관에 와서 다도체험을 하는 만큼 옛 가옥 사랑채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다도체험을 하는 관광객들이 추사 김정희의 스토리텔링과 함께 더 몰입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체험 공간 구성이 아쉽다. 그리고 다도체험 접수는 현장에서만 받고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안내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 제공 및 홈페이지 또는 전화 사전예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추사와 우정의 향기를 나누다'라는 주제로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3달 동 제주 추사관과 귤중옥, 오설록 티뮤지엄에서 진행되었다. 행사 주최는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 센터이며, 후원은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오설록이었다. 생생문화재 사업이란 '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문화재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확립하고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자체 및 문화재경영단체의 문화재 활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추사와 우정의 향기를 나누다.'라는 주제로 프로그램 구성은 제일 먼저 추사관에 들려 해설사로부터 추사 김정희의 삶과 유배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장소인 귤중옥에서 '귤중옥의 하루' 타이틀로 인문학 강연이 이어진다. 힘든 유배생활에서 추사 김정희가 초의 선사와 그 외의 친구들과 차와 그림으로 나눈 우정 이야기 그리고 제주도에 차 문화가 보급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설록 티뮤지엄에 가서 티소믈리에와 다도체험을 하고 발효차 저장창고를 둘러보는 순서로 마무리 된다.



<사진 III-61> 생생문화재 ①⁹⁴⁾



<사진 III-62> 생생문화재 ②⁹⁵⁾

94) 제주도정뉴스 <http://news.jeju.go.kr>

95) 제주도정뉴스 <http://news.jeju.go.kr>

IV. 제주도의 차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앞서 차문화산업의 영역을 ① 차문화와 관광산업, ② 차문화와 MICE산업, ③ 차문화와 교육산업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제주도의 차문화 산업을 알아보았다.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제주도 차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세가지 산업 영역으로 나눠 제언하고자 한다.

1. 차별화된 제주도의 차문화 체험확대

제주도만의 타 지역과 차별화된 차문화 체험활동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제주도청은 이를 지원하며 제주도청이 각 기관의 체험프로그램 통합 관리하며 홈페이지에서 홍보 및 예약 해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대표적으로 오설록 기업이 제주도에 티뮤지엄과 티스톤을 개관하면서 차를 잘 몰랐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도의 차문화를 알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아직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차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차문화 체험 후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주변에게 추천하는 경향이 많아 제주도의 차문화 보급은 속도를 더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차문화 관광산업으로써의 콘텐츠가 다원방문, 제다, 다도체험 그리고 다식 및 녹차를 활용한 음식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체험하였던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여 체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제주농업기술원은 상품성이 없어서 버려졌던 녹찻잎을 활용한 녹차 수제 비누를 개발하였다. 녹차 수제 비누 제조 방법은 녹차 재배 농가에 보급하고 비누 만들기 실습도 진행하였으며 녹차 수제 비누 개발로 농가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차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 한 개발이 필요하다.

제주도만의 차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감물을 들인 제주도의 민속의상 갈옷을 입고 다도체험을 하거나, 제주도는 다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각적 볼 거리를 제공하므로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야외에서 다도체험 또는 들판 차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제주 흙으로 찻잔 굽기 체험등과 같은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차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다시 방문하였을 때 차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차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기업 및 기관은 많으나 기업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다원이나 작은 협회에서는 홍보력 부족으로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목록화 하여 제주도청의 관광사이트에서 통합하여 예약을 받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2. 제주문화와 접목한 고품격 행사

제주도는 1997년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JEJU)의 설립과 함께 제주 지역의 MICE가 도입되었다. 제주도의 국제회의 2003년 10건, 2015년도에는 2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지역의 MICE행사는 외국인 참가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고 개최 기간이 길어 경제적 파급효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⁹⁶⁾ 제주도청 문화관광스포츠국 부서에 MICE산업팀이 조성되어 있으며 제주도 국제회의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가 MICE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 규모 확대, 신규 건립과 부대시설 고급화 등 인프라 확보와 서비스 품질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수준 높은 신규 행사를 개발하고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제주도에서의 MICE산업 유치의 차별점이라면 제주도만의 문화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부대시설에 있다.

MICE산업의 제주도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부대시설 중에서도 제주 야생차 및 녹차를 공급하는 식음료 서비스와 차문화를 보여주는 퍼포먼스 등과 같은 행사를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의 및 국제회의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 대신 제주 녹차 혹은 야생차와 제주도 특산물로 만들어진 다식을 제공 하는 것이다. 이 때 차와 다식에 어울리는 제주도 돌과 흙으로 만든 다구 또는 접시를 사용한다. 그리고 제주도 전통적인 감물을 드린 테이블보와 유채꽃 및 동백꽃등을 사용한 다화를 함께 보여준다면 회의 참가자들도 타 지역과 다른 특색 있고 품격 있는 행사로 기억할 것이다. 또한 식음료 서비스 외에도 제주도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다악(茶樂)을 만들어 회의 브레이크시간의 배경 음악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96) 허정옥 외, 전계서, pp.52-53

그리고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 제주시청은 제주도 MICE산업의 식음료 부대시설을 서비스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제주도만의 차별화되고 고품격의 부대시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제주도의 MICE 산업의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11월 25일에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1회 2015 제주MICE산업대전'이 열렸다.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목적을 가진 이해 당사자가 모여, 대면 마케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를 가지는 협회회의 시장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MICE산업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국제적인 MICE 산업 위상에 맞는 제주도의 특별한 부대시설을 알리는 장이 되었다.

이와 같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열린 '제주MICE산업대전' 개최를 보더라도 제주도의 MICE산업의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제주도의 MICE산업 유치를 위해 제주도의 문화 콘텐츠 중 차문화를 활용한 고품격 행사를 개발한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제주도만의 MICE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평생교육으로서의 차문화 교육

제주도는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만의 독특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제주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해 인력이 동이 국내외로 활발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내용으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교육서비스산업에 대한 고려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 안착시키기 위한 공공교육진흥 및 인재양성에 대한 계획마련이. 그리고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의 의거하여 중앙정부의 「제 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100세 시대 사회번영,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창조경제시대 진입’을 위해 유연한 평생 학습 기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⁹⁷⁾

강봉수(2002)⁹⁸⁾는 급변하는 삶의 양식에 대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교육방식의 필요에 따라 대두하게 된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교육적 욕구충족 및 자기개발과 지역사회의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들 수 있다.

제주도의 차문화와 연계된 교육을 조사하기에 앞서 제주도의 대학기관의 관련 전공 혹은 과목을 찾아보고 제주지역평생교육기관의 차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제주도에는 제주국립대학교(4년제), 국제대학교(4년제), 한라대학교

97)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2014.6),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014~2017)」

98) 강봉수(2002), 교육박물관 평생교육 운영의 실제, 제주교육박물관 평생교육 자료집 제3호, p.5

(2·3·4년제), 관광대학교(2년제) 이렇게 총 4군데 대학교가 있다. 이 학교들 중에는 차문화와 관련된 학과 및 전공 그리고 교양과목은 없다. 제주도의 특성상 관광학과는 있지만 학과 교과목으로 찾을 수 없었다.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는 ‘다도와 다식’이라는 제목으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도와 다식’ 과정은 수필 창작 및 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인문·교양프로그램에 속해있다. 인문·교양 프로그램에 ‘다도와 다식’ 외에 ‘꽃차 만들기’ 강좌도 있어서 차에 대한 관심과 차와 관련된 강좌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도와 다식’ 강좌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총 네 번 개설되며 교육장소는 제주대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된다. ‘다도와 다식’ 강좌는 2007년부터 개설되었다. 또한 제주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통차예절지도사’ 자격과정을 운영하였는데 현재는 개설하고 있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12년도 제주도민 평생학습 참여현황 및 욕구실태 조사보고서」⁹⁹⁾에서 만 24세 이상 도민 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17일간 평생학습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민들은 ‘교양함양이나 지식습득 등 자기계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얻었다 (5점 만점에 3.80점)고 답하였고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예술 및 취미교육 프로그램’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문교양 프로그램중에서는 ‘사회문화교양과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제주도의 평생학습기관의 문제점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부족’과 ‘낮은 전문성’을 지적하였다.

제주도는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과 창조경제 시대 진입으로 인해 평생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인문학 콘텐츠를 활용하여 차문화

99) 제주특별자치도(2012), 「2012년도 제주도민 평생학습 참여현황 및 욕구실태 조사보고서」, p.18,35,50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도입하고 활성화 한다면 도민들의 교양함양 수준 향상과 함께 제주도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인문학 콘텐츠를 활용한 차문화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문화원형 콘텐츠 연구와 제주도 공간, 문화, 역사의 인문학적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문화 교육을 통해 인성 함양과 예절의식 고취와 같은 목적과 함께 제주 차문화 계승 및 발전의 목적도 있어야 할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차문화 교육 외에도 유아·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활동 혹은 학교 수업 중 일환으로 차문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제주도 대안학교와 장애인 복지관에서의 차문화 교육을 통해 차문화를 체험하게 하여 자아 회복에 도움을 주고 취약계층에게도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문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문화 교육자를 타 지역 외부에서 유입시키는 것이 아닌, 제주도에서 제주도 역사와 문화를 접목시킨 차문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티마스터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성 있는 제주도 차문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제주도의 차문화 평생교육 강사로, 제주도 차문화 전도사로 배출하여야 한다.

V. 결 론

제주도로 이주하는 인구 및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 그리고 제주도의 국제화와 MICE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제주도만의 문화를 접목시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제주도의 최적화된 자연환경으로 차나무가 잘 자라고 제주도가 보성, 하동과 함께 우리나라 녹차 3대 생산지에 들어가며 최근 들어 제주도의 녹차산업이 부흥하는 현황을 반영해 제주도의 차문화산업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제주도 녹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차문화산업의 영역을 관광산업, MICE산업, 교육산업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제주도 차문화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각 산업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해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제주도의 차문화와 각 산업을 연계하여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제주도의 차문화와 관련있는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2015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차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한하여 담당자와 면접이 진행되었다.

첫째, 관광산업으로서의 차문화를 살펴보면 체험의 형태로 차문화 제공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차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제주도의 차문화 관광산업으로써의 콘텐츠가 다원방문, 제다, 다도체험 그리고 다식 및 녹차를 활용한 음식만들기에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제주도만의 타 지역과 차별화된 차문화 체험활동을 위해서 새로운 차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였다. 그에 대한 콘텐츠로 제주도 민속의상인 갈옷을 입고 다도체험 하기, 제주도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다도체험, 제주흙으로 다기 굽기 체험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광객이 오설록 다도체험 외에는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 기업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다원이나 작은 협회에서는 마케팅 및 홍보력 부족으로 관광객들에게 체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청이 각 기관의 체험프로그램 통합·관리하며 제주도청 관광사이트에서 홍보 및 예약 해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제주도는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JEJU)의 설립과 함께 제주지역의 MICE가 도입되었고 제주도의 국제회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준 높은 MICE를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MICE산업과 차문화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제주도 문화를 접목한 고급화된 식음료 부대시설이 경쟁력 있는 MICE산업의 차문화로 보여진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품격 있는 MICE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주 다식과 블렌딩티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전통성(性)·제주성(性)이 나타나는 MICE산업 식음료 부대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 브레이크 타임에 차 퍼포먼스 시연과 이와 어울리는 제주도 다악(茶樂) 개발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제주도의 교육산업으로서의 차문화는 평생교육으로 접근하였다. 현재 제주 소재 대학기관의 차문화 관련 전공과목과 교양 과목은 찾을 수 없다.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다도와 다식’이라는 주제로 하는 교육수업이 있었지만 수요가 없어 2015년에는 개설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국제적 전문 인력 양성과 창조경제 시대 진입으로 인해 평생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인문학 콘텐츠를 활용하여 차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도입하고 활성화 한다면 도민들의 교양함양 수준 향상과 함께 제주도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 평생 교육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차문화 교육 전문가를 타지에서 유입시키는 것이 아닌 도내 ‘티마스터과정’을 개설하여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

에 한하여 제주도 차문화 전문가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제주도는 차나무를 재배하기에 매우 적합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제주도로 유배를 왔다. 천혜의 환경과 학자들의 유배지로 고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제주도의 역사적, 문화적 성격은 차의 성품과도 매우 닮아있다.

한재 이목은 차를 수신 방법의 하나로 삼았고, 차의 성품이 유가 성현들의 인격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았다.¹⁰⁰⁾고 하였다. 차의 성품과 제주도의 역사적·문화적 스토리를 잘 조화시켜 차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험·행사·교육을 인문학적 교양과 결부시킨다면 제주도의 차문화 산업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이다.

100) 최진영, 전계서, p.79

참 고 문 헌

<단행본>

- 장인희 외(2000), 『음식대관』 3권, 한림출판사
- 규방다례보존회(2014), 조선시대 여성의 차문화와 규방다례, 민속원
- 김영순 외(2010),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 김용오(2012), 한국의문화와 차, 서울: 동일출판문화원
- 김혜영 · 홍금이(2009), 다식의 맛과 멋,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리우이링(2006), 차의 향기:교양으로 읽는 중국 생활 문화, 산지니
- 손연숙(2008), 손연숙의 차문화기행, 서울:이른아침
- 오미정(2008), 차생활문화개론, 도서출판 하늘북
- 이기윤(2000), 한국인의 차문화, 개미
- 이길표 · 주영애(1999),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신광출판사
- 이상균(2012), 차를 권하다, 오픈하우스
- 장영동(2008), 주역, 그리고 다도의 속멋, 도서출판 이른아침
- 정동효 · 윤백현 · 이영희(2012), 차문화생화대전, 홍익재
- 정영선(1990), 한국차문화, 너럭바위
- 주영애 외 6인(2011), 세계의 차문화, 서울: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짱유화(2013), 차과학 길라잡이, 도서출판 삼녕당
- 최영성 · 진경환 · 최공호(2009), 전통문화교육의 이론적 기초, 서울:한국
교육과정평가원 :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술지 및 학회지>

- 강봉수(2002), 교육박물관 평생교육 운영의 실제, 제주교육박물관 평생
교육 자료집 제3호, p.5
- 기민정(2005), 보성녹차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식품
유통학회, Vol.22 No.3, pp.155-178
- 김성태(2014),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서은주(2014),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유아다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19권6호,
pp.341-365
- 신미경(2012). 조선시대 차문화. 전통문화논총 10권, pp.4-23
- 신장섭 · 문영만(2010), MICE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내 관광상품 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논문집 Vol.27, pp.161-176
- 윤대순(200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경영의 과제와 정책대안, 제63차
제주 학술심포지엄, pp.80-88
- 이영관 · 박근수 · 오요(2010), 한국 하동과 중국 황산의 차문화관광 비교
연구, 한국사상문화학회, 68권0호, pp.303-323
- 임치환 · 박진경(2015), 녹차 관광지의 동기요인과 선택속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하동 · 보성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영공학회, 20권
2호, pp.73-90
- 조희선 · 이순실(2004), 다도교육이 여고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16 No.1 pp.1-17
- 주영애 · 고운호 · 이향숙(2010), 茶를 활용한 제주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화학회 추계학술대 발표논문집

주영애 · 조선주(2009), 차 교육 효과성 연구의 동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제24권 1호, pp.1-12

주영애 · 최배영 외 3인(2012), 중년기 주부의 행복감 향상을 위한 심신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요가와 차 명상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Vol.16 No.2 pp.77-101

최배영 · 장칠성(2008), 대학생의 차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도 연구, 한국 차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19-142

허경옥 · 주영애 · 이효정(2011), 소비자의 녹차 및 커피 음용량과 각 전문점 이용량 및 소비자만족도 영향요인,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7권 2호, pp.1-22

<학위논문>

고희송(2010),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보순(2008), 대구지역 공무원의 차문화 활성화 방안 인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영본(2007), 한국 차의례에 대한 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아(2012), 차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정(2005), 국제적 다가(茶家)로서의 이상적(李尙迪)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경미(2008), 제다방법에 따른 녹차의 비교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금옥(2010), 보성 녹차의 복합산업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금옥(2014), 차문화의 컬처노믹스적 공간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자(2010), 유아다례 교육에 관한 연구동향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자(2015), 유아 전통 문화 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연(2006), 호텔 컨벤션과 전문 컨벤션 시설의 참가자 만족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원(2010), 차문화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주(2015), 강진 차문화컨텐츠의 활성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민(2007), 한국의 차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정(2004), 유아다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일희(2004), 생태학적관점에서본 차문화공간에관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창숙(2004), 차 생리활성에 관한 종합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영(2005), 차 전문점을 통한 차 대중화 방법에 대한 연구: 커피전문점과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숙연(2009), 차문화축제의 활성화 방안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자(2014), 초등학생의 차생활예절교육을 통한 차생활 인식과 정서 및 행동 변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선(2008), 컨벤션 식음료 서비스 운영사례 분석 및 QFD기법을 이용한 서비스 개선 전략 수립,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영(2003), 寒齋 李穆의 茶精神 研究 : 「茶賦」를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영(2013), 동다의식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탁효영(2004), 紫霞 申緯의 飲茶生活에 관한 考察 : 『警修堂全藁』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기정(2013), 18·19世紀 朝鮮 知識人の 茶文化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난춘(2007), 평생교육 관점에서 성인 다도교육의 효과 분석,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경(2011), 영국 차음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금이(2009), 茶食 發達 過程 研究 : 文獻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기타>

「2013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2), 문화체육관광부

「女四書」卷2, 「女論語」,待客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ck.history.go.kr/>)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다희연 홈페이지 (<http://www.daheeyeon.com/>)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

보성녹차관 (<http://www.greenbs.kr/>)

성신여자대학교 뉴스 (<http://new.sungshin.ac.kr/>)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문화산업연구소, 전통차예절지도사과정, 남양주

위탁교육교재

송인관(2011), 제주녹차 “예스그린” 미국 현지 소비자 반응결과, 제주

농업기술원 농산물 원종장

오설록 티뮤지엄 홈페이지 (<http://www.osulloc.com/>)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 · 장기계획(2013~2022) 최종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다원 홈페이지 (<http://www.jejugreentea.co.kr/>)

제주다원 홈페이지 (<http://www.jejugreentea.co.kr/>)

제주도정뉴스(<http://news.jeju.go.kr>)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http://www.agri.jeju.kr>)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보도자료(2014.4.28) ‘제주녹차 소득향상

실용기술 현장워크숍 열려’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정보공개시스템 (<http://iopen.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2012), 「2012년도 제주도민 평생학습 참여현황 및 욕구
실태 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2014.6),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4~2017)」

하동녹차연구소 (<http://www.hgreent.or.kr/>)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itkc/Index.jsp>)

한국차문화 종합체험의 장, 설록차뮤지엄 오설록 개관, 식품과학과 산업,
34권 3호

허정옥 외(2015), 제주지역 MICE 산업의 발전방안, 제이씨씨주식회사

ABSTRACT

Study of Tea Culture Industry activation of Jeju

Baek, Ju Won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University

The population recently migrated to the island is growing rapidly and have significant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to visit the Jeju island. In particular Jeju island are sold to tourists, including the Chinese people to discover and commercialize tourism content related to K-POP, drama, movies limiting effect. But Jeju island Visits of foreign material falling exhibitions, screenings, performances, cultural events such as Jeju citizens' satisfaction with the cultural environment of the island is becoming less scarce. Now the island is all about once became a famous tourist destination has become have stayed where you want to live to the public. Forward to continu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ts to make repeat visits to the island, it is necessary for the island citizens' enjoyment of cultural tourism and cultural content developed using only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island.

Jeju Island is the place held by the blessed natural environment

early on recognized the value selected in the World 7 of Nature by UNESCO. Jeju island also has got the perfect weather conditions and precipitation of tea cultivation, soil and water the best place to grow the green tea. In a number of historical places of exile, including Chusa ancestors came along, Kim Jung Hee is also a place where you can find a lot of cultural characteristics. Jeju Island is developing a beautiful natural heritage and differentiating of Jeju Island only on the basis of high-end tea culture content in this way, and if linked with them a variety of Industry, Tourism and content of the island is also becoming a rich variety linked and tea culture together with the activation of Jeju Island Tea Culture Industry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island's tea culture content tea culture industry areas ① Tea Culture and Tourism, ② tea culture and the MICE industry, ③ tea culture and education industry divided into three review the existing data and each Industry difference in Jeju Status of the culture were investigated.

Jeju Island's tea culture industr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field investigation.

Accordingly tea culture Industry activation of Jeju by ① tea culture and tourism, ② tea culture and MICE industry, ③ tea culture and education industry to propose three kinds of industry.

First, by differentiating of Jeju Island tea cultural activities Jeju folk costume of GALOT wearing tea so experience and to see the

beautiful scenery of Jeju tea ceremony experience in the field, making goods by the Jeju soil that experiences such as new content development needs. Information for tourists with a lack of marketing skills agencies are not well delivered. So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troduced and reserve Jeju Provincial Government tourism site.

Second, The advanced exercise is needed that combine the culture of Jeju. It is required tea tableas, performance tea and tea-music developmen based on the Jeju Province as food and beverage facilities in the MICE industry

Third, due to the Jeju island's international professional training and creative economy is entering lifelong learning is becoming more important and is considered a liberal cultivation of tea culture, education levels improved and specialize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residents of the island regions are important.

부 록 목 차

<부록 1> 협조 요청문

<부록 2> 제주도내 차문화 체험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질문지

<부록 1> 협조 요청문



성신여자대학교

수신 제주 오설록티뮤지엄

(경유)

제 목 제주도내 차문화 체험활동 기관 조사 및 인터뷰 협조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의 전통문화콘텐츠전공 백주원 학생이 「제주 도내 차문화 체험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라는 주제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 박물관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한국의 차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였기에 직접 방문하여 티스톤의 교육환경 사진 촬영과 실무자 및 강사 인터뷰를 하여 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3. 아래와 같이 방문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후학의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혀락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애 래 -

1. 제 목: 학위논문 「제주도내 차문화 체험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협조요청

2. 방문일시: 2015.11.24.(화) ~2015.11.26.(목)

※ 위에 날짜 중 귀사의 담당자 인터뷰 가능일시를 알려주시면 맞춰서 방문하겠습니다. (인터뷰 시간에 맞춰 티스톤 본인이 직접 예약할 예정임)

3. 내용: · 티스톤 교육환경 사진 촬영(5매 이내)
· 실무자 및 강사 인터뷰(5분 이내)

4. 방문자: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전통문화콘텐츠전공
학위논문작성자 백주원(연락처:010-9368-9995)

붙임: 인터뷰 질문지 1부. 끝.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주임(인)

연구자 : 전통문화콘텐츠전공 백 주 원 (인)

협조자

시행 2015-전통-000호 (2015. 11. 20) 접수

우 142-73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 성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B동 214호

전화 02-920-7511 전송 / ssculture@sungshin.ac.kr / 공개

<부록 2> 제주도내 차문화 체험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질문지

**제주도내 차문화 체험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실무자 인터뷰 질문지**

본 질문지는 제주도의 차문화산업 발전과 제주도의 녹차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 차문화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의 현황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질문의 내용은 위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제주도내 차문화 산업 콘텐츠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의 응답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5. 11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지도교수: 주영애
연 구 자: 백주원
beckjuwon@gmail.com

조사 대상자 정보	소속기관				
	직 급				
	성 별	남		여	
	연 령 대	20대	30대	40대	50대

질문1. 년 방문고객수와 외국 관광객 수

질문2. 년 프로그램(다도체험 또는 기타) 이용수

질문3. 직원 수

질문4. 직원의 차문화 전공자, 관련자격증 소유 또는 연수경험자 현황

질문5. 차문화 전문기획자 근무와 기획자 양성 계획 여부

질문6. 제주도청의 지원 여부

질문7. 제주 차문화에 대한 방문자들의 관심도

질문8. 앞으로의 제주 차문화 발전에 대한 의견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